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2세 교육 25년 근속 남일교장



남일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교장

장기근속의 비결은 꾸준히 동행해준 동료교사
한인 인구 1.5배 증가, 한국학교 학생은 3배 증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우수 교사진도 미국내외 인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금은 타주로 이주를 하였지만 전에 한 어린이가 엄마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등록을 하고자 왔었는데 그 할머니는 1976년부터 우리 학교의 학생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개교 43주년이 되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남일교장(56)은 아직도 감동이었다고 말한다. 보조교사로서 첫발을 댄었던 남일 교장은 이 학교 교장이 되어 있으며 또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교사이기도 하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도 문해원교사(27주년), 명정호교사(25주년)와 더불어 단 3인만 25년 고지를

넘었다.

딸이 한국학교에 입학하면서 보조교사를 맡았던 남일교장은 새로 생긴 이중언어반담임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교사활동을 시작했다. 25년이 되는 동안 딸은 어느새 성장해 외교관이 되었다. 그런 남일 교장도 할머니와 손자가 같은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슴에 묵직하게 전해졌다.

1999년 당시 황성미 교장에 이어 교장직을 시작한 것도 20년이다. 한인사회의 규모도 커졌고 뉴잉글랜드한국학교는 그보다 더 커졌다. 남교장은 “좋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사진이 잘 홍보되어 25 ▶▶8면으로 계속



홍상수 감독

하버드필름아카이브 홍상수 감독 영화전

〈홍상수의 도덕이야기〉주제 3/24-4/1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필름아카이브가 〈홍상수의 도덕이야기〉이라는 주제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 7편을 3월 24일부터 상영한다. 영화는 4월 14일까지 금, 토, 일요일 등에 상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상수(57) 감독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주의 감독으로 꼽힌다. 그의 영화의 특징은 일상과 반복이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일상적인 언어와 대화, 만남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인간의 욕망, 특히 남녀관계의 내밀한 역학관계와 감정변화를 그린다." 고 평했다.

홍 감독은 중대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미국 유학길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Weekly Special

보스톤 출발-인천행
왕복항공권 최저가 요금

\$840~ (3인당)

상당문의
(617) 424-8956
(866) 619-4223

www.iace-travel.com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ENGEL & VÖLKERS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NGEL & VÖLKERS
EILEEN PARK
REALTOR |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하버드필름아카이브 홍상수 감독 영화전

▶▶1면에 이어서

에 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예술대학원에서 영화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데뷔했다.

술자리의 대화가 빠지지 않고 등장해 등장인물의 속물근성을 끄집어 내고, 독특하고 즉흥적인 영화작법을 고수한다. 당일 촬영본을 그날 아침 써서 배우들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배우들의 실제 말투나 성격, 습관 등을 영화속 등장인물과 접합시키기도 한다.

한국영화 회고전은 하버드한국학연구소와 하버드필름아카이브가 협력해 매년 한번씩 개최하고 있다. 하버드 필름아카이브는 케임브리지 24 퀸지스트리트에 소재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일반인은 9불, 학생은 7불이다. 하버드 학생들은 무료다. 이번 상영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THE MORAL TALES OF HONG SANG-SOO

Saturday March 24 through Saturday April 14.

The Day After (그후)

Saturday March 24 at 7pm

Saturday April 14 at 9:30pm

Nobody's Daughter Haewon (누구의 딸

도 아닌 해원)

Saturday March 24 at 9pm

Right Now, Wrong Then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Sunday March 25 at 7pm

Friday April 13 at 9pm

Hill of Freedom (자유언덕)

Friday March 30 at 7pm

Our Sunhi (우리선희)

Sunday April 1 at 7pm

On the Beach at Night Alone (밤의 해변에서 혼자)

Monday April 2 at 7pm

Friday April 13 at 7pm

Yourself and Yours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Followed by Panel Discussion

Saturday April 14 at 7pm

영화 상영후 영화제작자 유순미씨 보스톤칼리지 크리스티나 클라인 교수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개최한다.

Harvard Film Archive

24 Quincy Street,

Cambridge, MA 02138

(617) 495-4700

<http://hcl.harvard.edu/hfa>

hsb@bostonkorea.com



Our Sunhi (우리선희)



The Day After (그후)



Right Now, Wrong Then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Nobody's Daughter Haewon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Yourself and Yours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작년 시민협회 정치 인턴 모금 모습

시민협회 정치 인턴 모금 만찬 4월 9일

기조연사 훈영 합굿 미시간주 한인 상원의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KACL)는 차세대 정치 인턴 지원을 위한 장학금 모금 만찬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렉싱턴에 위치한 엘크스클럽(Elks Club)에서 개최한다. 기조연사는 훈영 합굿 미시간주 한인 상원의원이다.

시민협회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총87명의 인턴들을 배출했다. 이들 인턴들은 여름방학동안 연방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서 6-8주간 근무했다.

올해에는 대학생 2명, 고등학생 5명 인턴 후보자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시민협회는 이중 정치인턴을 선발해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사무실을 비롯해 미셸 우보스톤 시의회 의장 사무실 등에 인턴을 파견한다.

시민협회는 정치인턴 기금모금만찬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선발된 인턴들에게 대학생 \$2000, 고교생 \$500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시민협회 정치인턴장학생 모금 만찬의 참가비는 일반인이 \$60이며 학생 및 시니어의 경

우는 \$30이다. 이 행사에 대한 문의는 info@kacl-ne.org, 이경혜 회장 (508-962-2689), 혹은 김성군 이사장 (617-799-7033)에게 할 수 있다.

이경혜 시민협회 회장은 "우리 한인의 권익확보와 정치력 신장을 위해 미래를 밝힐 차세대들에게 성원을 보여줄 기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시: 토요일, 4/18/18, 6시
장소: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781-862-9759
hsb@bostonkorea.com



보스톤중앙대 동문회 제22차 정기총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중앙대학교 동문회는 3월25일 일요일 오후 5시 메드포드에 위치한 수라바베큐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갖는다

이기환 동문회장은 "신입회원과 학생회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보스톤중앙대학교동문회는 지난 2006년 뉴잉글랜드중앙대 동문회에서 명칭을 보스톤중앙대동문회로 변경했다.

일시: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27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연락처: 이기환 회장 (781-572-8044)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성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3/17/18 - 5/26/18	Sat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3/17/18 - 5/26/18	Sat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July 2018

Class	Time	7/9/18 - 7/27/18	Mon-Fri
SAT I Prep	8:00 AM - 12:00 PM	7/9/18 - 7/27/18	Mon-Fri
Biology Preview	1:00 PM - 3:00 PM	7/9/18 - 7/30/18	Mon/Wed/Fri
Chemistry Preview	4:00 PM - 6:00 PM	7/9/18 - 7/30/18	Mon/Wed/Fri

August 2018

Class	Time	8/6 - 8/24	Mon-Fri
SAT I Prep	8:00 AM - 12:00 PM	8/6 - 8/24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8/6 - 8/24	Mon-Fri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진 쉐인 뉴햄프셔 연방상원의원 한인 태권도장 방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진 쉐인 재선 연방상원의원(민주)이 포츠머스 소재 박선우태권도장 연례 승단심사 및 최우수수련생표창식에 3월 10일 참여해 격려했다.

연방상원의원이 개인 태권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박관장과 진 쉐인 상원의원은 지난 90년대부터 친분을 유지해오던 사이다. 쉐인 의원이 뉴햄프셔 주지사(1997-2003년)를 지내기 이전부터다.

행사에 참석한 쉐인 상원의원은 박관장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업적을 축하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헌신한 봉사활동에도 감사를 표하였다. 박관장은 33년간 수천명의 수련자와 500여 유단자 제자들을 배출해왔다.

쉐인 상원의원은 이날 모든 수련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태권도를 통하여 배운 가치를 개인의 인격도야는 물론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써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이날 새로운 유단자 입단 및 승단하는 8명의 청소년들에게는 한명씩 개별적으로 축하했다.

박관장은 진 쉐인 상원의원을 “한국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잘 모르는 친한화



뉴햄프셔 진 쉐인 재선 연방상원의원(민주)이 포츠머스 소재 박선우태권도장 연례 승단심사 및 최우수수련생표창식에 3월 10일 참여해 격려했다

이자 지한과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쉐인의원은 20여년간 뉴햄프셔 한국전 참전용사보은행사 등 한인회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박관장은 “그간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늘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한인들이 이민과 영주권 문제 등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탁해서 해결해준 것들”이라고 밝혔다.

과거 같은 동네(Durham)에 살아 쉐인 의원과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정도라

는 박관장은 정치모임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다. 이후 쉐인 의원이 주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예비 후보일 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이후 정치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박관장은 “무소속으로 양당 정치인을 후보 시절부터 지원하며 친분을 쌓아오고 있다. 당내 경선을 할 때 만나서 지원하고 원하는 것을 말해야 친분을 형성하기 좋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남성 가야금 연주단 춘호가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춘호가랑은 2015년에 남성 가야금 연주단으로 창단되었다. 가야금과 그 음악이 여성적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남성 연주자들의 특색과 영감으로 가야금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춘호가랑이 3월 19일과 20일에 브라운 대학과 웰즐리 대학에서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공연을 갖는다. 19일 브라운 대학 공

연은 오후 4시에 리스트 아트 건물 120호 (List Art Building, 64 College St, Providence, RI) 에서, 그리고 20일 웰즐리 대학 공연은 오후 4시반에 쥬엣 오디오리엄 (Jewett Auditorium, 106 Central St, Wellesley, MA) 에서 열린다. 각 공연은 무료 입장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저온숙성방식 도입으로 유효성분 강화 및
맛/향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정관장 新홍삼정

Special Promotion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30 상당 증정



**천녹정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70 상당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지난 해 워싱턴 DC 에서 개최된 UKC 2017 대학원 장학생 시상식

재미과기협 2018년 장학생 모집

과학기술전공 학부생 20명, 대학원생 20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미 전역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 과기협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응모마감은 3월 31일이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과학, 공학, 의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KSEA 회원이거나 신규가입자에 한한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2학기 또는 3쿼터를 마친 상태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원 장학생은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장

학생 신청 당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부생 장학금은 최대 20명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각 1,000 달러이다.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이사장 조무제)와 공동으로 수여하는 대학원생 장학금은 20명에게 각 1,500 달러씩 수여된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되며, 대학원생 장학금 수여자들은 8월 1일-4일 뉴욕 퀸즈 소재 St. John's University Conference Center 에서 개최되는 '2018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18)에 초청되어 장학금을 받게 된다. 필요한 서류는 장학금 신청

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 영문 에세이 등이다. KSEA 장학위원회는 신청자들의 성과와 에세이, 추천서 내용, 지역사회 봉사 및 협회 활동 등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학생 신청은 웹사이트 <http://www.scholarship.ksea.org>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응시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KSEA 장학위원회 scholarship@ksea.org hsb@bostonkorea.com

재미 과기협 수학경시대회 4월 7일 MIT에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과학 기술자 협회 (KSEA, 이하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가 2018년도 수학경시대회 온라인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 온라인 사전 등록 마감은 3월 30일이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경시대회는 4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MIT (Building 4 Room 163) 에서 열린다. 수학경시대회는 매년 미국 내 4-1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열리는 전국 규모의 행사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의 주최 및 주관으로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 및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수상자는 전미 수상자 후보로 자동 선정되며, 매년 뉴잉글랜드 지역의 상당수 학생들이 전미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4-11학년 학생들은 과기협 홈페이지 <http://ksea.org/nmsc/> 를 통해 온라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온라인 등록 25달러, 현장 등록 30달러이다. 현장 등록 및 온

라인 등록자 check-in 은 당일 12시 30분이며, 1시 정각에 각 시험실로 이동하게 된다. 과기협 홈페이지에서는 예제 및 정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출제 문제를 예상해 경험해 볼 수도 있다.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정유진 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학부모들을 위한 몇 가지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고 전해왔는데,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정보가 제공 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정유진 회장은 이번 행사의 진행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학경시대회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과기협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고, 상세 문의는 정유진 회장 (contact@kseane.org) 에게 하면 된다. 일시: 2017년 4월 7일 (토) 1시 장소: MIT Building 4 Room 163, 182 Memorial Drive, Cambridge, MA 02139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한국학교협의회 2018교사사은회 열어 교사들 격려

남일 교장 비롯 11명 장기근속, 12명 우수교사 표창
김용현 총영사, 이승현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 강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사사은회를 개최해 우수 교사 및 장기근속 교사를 표창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3월 3일 토요일 렉싱턴 소재 성요한교회에서 개최된 사은회에서는 12명의 교사가 우수 표창을 받았으며 11명의 교사가 장기근속 표창을 5명이 우수보조교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남일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교장은 25년 장기근속으로 표창을 받았다. 현재까지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에서 수상한 최장기 근속교사다. 이외에도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김소희, 김정자, 남선경 교사와 보스톤한국학교 김동규, 노윤경 교사가 각각 10년 근속으로 표창을 받았다. 한국 학교에 장기근속 교사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학교가 2세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우수교사로는 윤자영, 정진희, 유미선, 이정설, 오지현(뉴잉글랜드), 이준(보스톤천주교), 이정은(보스톤), 이진욱, 권혜림(성요한), 김미순, 한정선(애머스트), 이경훈(우스터), 장은임(푸르피 한국학교) 교사 등이 수상했다. 한순용 전임 협의회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교사사은회와 교수연수를 겸해 진행된 이날 행사의 사회는 오인식 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올해 99돌 3.1절을 맞아 애국가를 4월까지 부르며 3.1 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현경 협의회 회장은 “행사 전날부터 정전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적 여건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죄송하다” 며 “저와 같은 상황에 놓



(좌)김용현 보스톤총영사가 축사및강연을 하고 있다(우)이현경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회장의 축사

우수 교사 및 장기근속 교사 표창자 명단

NAKS-NE우수보조교사(한국학교 생략)
뉴잉글랜드-최경훈
보스톤 천주교-허성민
성요한-이진희
애머스트-김도윤
우스터-윤로이

NAKS-NE우수교사
뉴잉글랜드-윤자영
뉴잉글랜드-정진희
뉴잉글랜드-유미선
뉴잉글랜드-이정설
뉴잉글랜드-오지현
보스톤 천주교-이준
보스톤-이정은
성요한-이진욱
성요한-권혜림
애머스트-김미순
애머스트-한정선
우스터-이경훈
푸르피-장은임

NAKS-NE장기근속
뉴잉글랜드김민정-5년
뉴잉글랜드김은아-5년
뉴잉글랜드홍준수-5년
보스톤 천주교서용학-5년
푸르피장은임-5년

뉴잉글랜드김소희-10년
뉴잉글랜드김정자-10년
뉴잉글랜드남선경-10년
보스톤김동규-10년
보스톤노윤경-10년
뉴잉글랜드남일-25년
NAKS-NE감사패
한순용직전회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주니어 리더상
(2016-2017년 봉사 시간)
성요한 이진희(135시간)
우스터 윤로이(100시간)
애머스트 이승빈(96시간)
보스톤 안수민(96시간)
우스터 이재원(92시간)
우스터 이윤지(90시간)
애머스트 문성호(81시간)

재외동포 재단 감사패
로드아일랜드 문혜원 27
뉴잉글랜드 남일 25년
북부보스톤 명정호 25년
뉴잉글랜드 이현경 22년
뉴잉글랜드 주민정 22년
성요한 이현경 19년

인 교사들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늘 수고하는 교사들의 노고에 깊게 감사드린다” 고 감사의 말과 함께 “2세들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글로벌인재로 육성 시키는데 있어 한국학교 교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고 격려했다.

김용현보스톤총영사는 “폭설로 침수와 정전에 고생하시는 한인들의 가정에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란다” 고 위로를 건넸다. 김 총영사는 〈한국-뉴잉글랜드 파트너쉽과 한인동포사회〉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어려운 주말학교 운영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 자원봉 >>7면으로 계속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bos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재미한국학교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사사은회를 개최해 우수 교사 및 장기근속 교사를 표창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제니 정 씨

▶▶6면에 이어서
사 차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재미 동포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과제중의 하나가 차세대 교육, 정체성 문제인데, “오늘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만남이 되어 좋았다” 라고 말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승민 총회장도 워싱턴에서 참석해 축사와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주제로 미국내 우리 한국학교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과 방향성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 회장은 축사 뒤 참석자 모두에게 바닥에 엎드려 큰절로 수고와 노고의 보답하는 큰 인사를 하

여 모든 이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에는 성요한한국학교 동시외우기 발표, 제니정의 해금연주, 푸르되 한국학교의 승무복, BLS 클럽의 난타 문화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채희정 총무와 UMass Lowell 한인대학원 정준호 학생회장이 진행하는 게임시간도 가졌다.
이현경 협의회 회장은 “이 행사를 위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 밝혔다. 협의회의 다음 행사는 4월 7일 글짓기 대회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안싱어즈 너싱홈 방문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멘토스음악원의 아마추어 합창단 보스톤코리아안싱어즈(BKS)가 프레밍햄 소재 너싱홈 (Bethany Health Care Center)을 3월 10일 찾아 위로공연을 가졌다.

보스톤코리아안싱어즈(BKS)는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통해 개인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공연과 봉사 연주를 통하여 한국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자 창단됐다.

지난해 10월에 창단 연주회를 가졌고 두번째로 12월 말부터 3개월간의 연습을 거쳐 3월 10일에 양로원 봉사 공연을 개최했다. 남녀 어른들과 어린이들로 구성된 BKS는 1시간에 걸쳐 가곡, 가요, 미국가 등을 30여명의 너싱홈 시니어들에게 들려주었다.

현재 BKS 남성합창반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BKS 여성합창반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웰슬리힐스 소재 보스톤멘토스음악원에 모여서 발성과 노래를 배우고 있으며, 다른 그룹도 신설 예정이다. 4월부터 매달 둘째주 월요일 저녁에 남녀 혼성합창 연습도 가질 예정이다.



보스톤멘토스음악원의 아마추어 합창단 보스톤코리아안싱어즈(BKS)가 프레밍햄 소재 너싱홈 (Bethany Health Care Center)을 3월 10일 찾아 위로공연을 가졌다

앞으로 그동안 배운 곡들과 새로운 곡들, 장르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노래들로 10월 중에 두 번째로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보스톤 멘토스 음악원, 617-218-7555, bomentorsmusic@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앞으로 그동안 배운 곡들과 새로운 곡들, 장르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노래들로 10월 중에 두 번째로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보스톤 멘토스 음악원, 617-218-7555, bomentorsmusic@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양로원 봉사를 다녀와서

글: 현정원

보스톤의 변화무쌍한 겨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작년 4월 초에 양로원에서 합창하는 날에는 함박 눈이 펄펄 내렸다고 했다. 다행히 올해 방문일이었던 10일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전 그 후 폭설이 내렸으니 양로원 방문과 눈은 깊은 인연이 있는 것만 같다.

양로원 방문이 계획된 후 거의 석달 동안 매주 모여서 한국가요와 국악풍의 노래와 가곡 그리고 성가모음을 연습하였다. 매주 새로운 곡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 연습을 하는 순간들이 설레고 마음 한구석이 훈훈하게 느껴졌다.

눈썹인 언덕 위 Bethany Health Care Center는 주로 은퇴한 수녀님들과 할머니

들이 기거하는 아담한 곳이었다. 예정된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휠체어를 타신 할머니들이 하나 둘씩 커다란 방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마저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참가했다. 어림잡아서 몇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 올해는 양로원의 다른 일정과 겹치게 되어 앉을 자리가 없이 짙었던 작년과 달리 조출한 인원이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여성 합창단이 신나는 리듬의 가요를 부르자 표정이 없던 분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귀여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마치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는 듯 따뜻한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남녀 혼성으로 부른 잔잔하고 아름다운 가곡에 이어 국악 리듬에 맞춰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지자 들썩이는 작은 움직임과 힘없는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서로 그분들의 귀에 익은 성가를 영어로 부르자 몇몇 분들이 같이 따라 하기도 했다.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과 남녀 혼성팀이 모두 함께 “You raise me up” 을 부르며 오늘의 순서를 모두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비록 우리와 같은 환호의 박수는 아니었지만 그분들에게는 한껏 마음을 담은 가장 큰 몸짓과 표현인 것 같았다

출입문 가까이 계시던 할머니 한 분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고맙다고 하시며 가녀린 손을 내밀었다. 따스한 온기로 마음이 전해졌다. 나눔과 봉사는 너싱홈의 할머니들이 아닌 결국 나의 가슴에 주는 따뜻한 위로였던 것이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남일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교장은 재미한국학교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로부터 25년 장기근속으로 표창을 받았다. (좌)김용현 보스톤총영사 (우) 남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

25년 근속 한국학교 성공 이끈 남일교장

▶▶1면에 이어서

년 전에 비해서 재학생 숫자가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고 학급 숫자도 3배 정도 늘어 모두 50 개로 증가했다.” 고 밝혔다. 2000년 센서스에서 매스주 한인이 17000여명이었고 2010년 센서스에서는 25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좋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는 교육자로서 목표가 교사 교육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각종 교사분반모임, 연수회 등을 통해 토론하고 배운다. 교장은 이런 크고작은 각종 모임에 참여해 교사를 격려하고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단체, 분반모임, 개인 카톡을 통해 교사들과 소통한다. 남교장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재직 교사들은 타주에서도 언제나 대한영을 받고 있을 정도로 교사의 수준이 높다는 평평이 있다” 라고 밝혔다.

남교장은 체력관리도 남다르다. 생식과 견과류 간식 하루 한끼 식사요법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다. 10년 이상 그는 이 식사요법을 지켜오고 있다. 남교장은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다” 고 털어냈다. 대신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학교 교사를 토요일 하루 근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루 몇시간의 교육을 위해 몇배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사명감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남교장은 밝혔다. 때문에 장기근속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꾸준히 동행해주는 동료 교사들로부터 힘을 얻어 지금껏 근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잉글랜드한국학교는 뉴튼의 오크힐미들스쿨을 주말에 빌려 쓰고 있다. “한국학교 교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매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고 ‘셋방살이’ 를 하다보니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 학교 규모가 커서 건물 전체를 임대함으로 임대료가 높아 상대적으로 고생하는 선생님들의 대우를 못해 드리는 것이 어려운 점이고 아쉬운 점” 이라고 남교장은 털어냈다.

올해 5월 뉴잉글랜드한국학교는 학교역사상 가장 많은 17명의 졸업생과 2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다. 남교장은 졸업생들이 감사를 전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43년동안 수많은 졸업생들은 한인 2세로서 충분한 정체성과 이중언어를 갖춘 인재로 성장해왔다.

남교장에게 지난 25년은 꽃길 만은 아니었다. 그도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고 지금도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뉴잉글랜드한국학교는 미국내 여느 한국학교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2세교육의 산실임이 틀림없다. 그의 25년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한국학교의 발자취에 스며들어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직업으로서 소설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링에 오르는 것은 쉽지만 거기서 오래 버티는 것은 쉽지 않다” 아무나 링에 오를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그 것도 잘한다는 것은 특별하다. 남교장을 비롯해 장기근속한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는 이유다.

editor@bostonkorea.com

2세 교육 25주년 근속 남일 교장 인터뷰 일문 일답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선 25주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하신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올해로 개교 43주년을 맞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잘 이끌어 주시고 초석이 되어주셨던 선배님들과 우리 학교를 꾸준히 지원해 주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학부모님들과 학부모회, 늘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스톤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모든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 하고 놀랄 따름이다.

▶25주년이면 미주내에서 거의 드문 일이 아닌지? 혹 첫 주자는 아닌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미주 지역 전체로 보면 25주년은 그리 드문 것은 아니다. 특히, 하와이 및 뉴욕지역 등 한인사회의 연혁이 오랜 지역들은 한국학교의 역사도 길어서 30년 이상 재직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다. 특히,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를 참석해 보면 많은 1세대 선배 교사분들이 아직도 현직교사로서 2-30년 이상 장기근속 표창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많은 교사들이 감동을 받고 더 오래 가르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한다.

▶25년 동안이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할 수도 있는 나이 동안이다. 혹 그렇게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으셨던 비결이 있는지?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헌신하는 자세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책이 주말 한국학교 교사다. 쉽게 보면 ‘단지 몇 시간의 수업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몇 시간을 알차고 효과있게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선생님들은 몇 배의 시간이 들게 되기 때문에 장기간 한국학교의 교사로서 재직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는 여러 명의 장기근속 교사분들이 재직하고 있다. 2세들의 교육을 위해 꾸준히 동행해 주시는 이분들이 있기에 나도 힘을 얻어 이처럼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교사로서 그리고 교장으로서는 언제부터 근무 하셨는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금년이 개교 43주년이

되는 해다. 1대 고 인창수 교장, 2대 고 백린 교장, 3대 김영집 교장, 4대 황성미 교장 선생님에 이어 지난 1999년부터 5대 교장직을 맡고 있다. 보조교사로 봉사를 시작하여 담임 교사와 교무주임교사를 거쳐 교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교장을 처음 맡으셨을 때 학생수와 지금의 학생수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교장 첫 해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했다.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짐과 함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좋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사진이 잘 홍보되어 25년 전에 비해서 재학생 숫자가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고 학급 숫자도 3배 정도 늘어 모두 50 개로 증가했다.

▶한국학교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과 교사로서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자체건물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학교 교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매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다. ‘셋방살이’ 를 하다보니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 규모로 인해 학교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료가 높아 상대적으로 고생하는 선생님들의 대우를 못해 드리는 것이 어려운 점이고 아쉬운 점이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졸업생들이 졸업사를 발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기초반으로 입학했던 어린이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이 있다. 미국 내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우리 학교가 훌륭한 교사진을 가진 우수한 학교로 인정을 받을 때 교장으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어떻게 처음 한국학교 교사를 시작하게 됐나?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지금은 미국 외교관으로 재직 중인 첫째가 처음 한국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보조교사로 봉사하면서부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중언어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반 이름이 노루반이었다.

▶교장직 수행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부적으로는 학교의 학사 ▶▶9면으로 계속

북부보스톤연합감리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 및 임직예배

일시: 3월 1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북부보스톤연합감리교회 예배실
244 Lowell Street, Andover MA 01810

<임직 장로 및 권사>

원로장로: 백이태, 원로권사: 윤은상
신천장로: 김복경, 신천권사: 정대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북부보스톤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온지 마흔 한해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서로를 축하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해 예배는 장로, 권사의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는 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 보스톤 교회
담임목사 최진용 외 온 교우 일동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유아)
장국왕과 대장군, 전통 놀이, 전통 장식품, 소중한 내 아가씨, 장국의 마음 보아주세요!
저렴하고 무침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진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장미와 마로니에로 만든 기차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입사와 장기, 골기
- 화려하고 위대한 나라홍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가족을 위한 보스톤 내 뮤지엄 멤버십 안내

▶▶8면에 이어서

일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행사가 많은 학교여서 각 행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일들과 신입 교사 교육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외부적으로는 우리 학교의 홍보와 정부기관 및 지역 단체와 개인에 까지 지원과 후원을 요청하는 일 등 하루 24시간을 모두 할애하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이 많기는 하다.

▶교사들과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 바쁜 일과 중에 어떻게 이를 다 소화하는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령과 커리큘럼에 따라 기초부터 세종과정(이중언어)과 음악교육부, 작문교육부 및 문화교육부 등 8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과정의 커리큘럼과 주요 행사들은 과정리더 교사들이 담당하여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기에 리더 교사들은 물론 각 선생님들과는 수시로 전화 또는 SNS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상호협조해야 할 부분도 많고 교장으로서 결정해야 할 부분도 많아 메모를 통해 빠진 부분이 없도록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종종 잊기도 한다.

▶오랫동안 근속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혹시 생식과 하루 한끼 식사가 체력의 바탕이 신지?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물론 처음엔 무척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다. 10년 이상 생식과 견과류와 하루 한끼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건강한 편이고 특히 잘 챙겨준 집사람의 내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혹 2세 교육자로서 목표가 있는지?

교장으로서의 첫 번째 목표라면, 교사 교육 및 양성이다. 우리는 교내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입 교사와 경험이 없는 교사지원자를 교육시키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재직하는 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 지역 한국학교에서 교사로 2세들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경험과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재직 교사들은 타주에서도 언제나 대한영을 받고 있을 정도다.

두 번째 목표라면, 쉬울 듯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졸업생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전에도 시도했었고 작년에도 졸업생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쉽지는 않다. 지난 43년 동안 배출된 졸업생 숫자는 상당한데 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세 교육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다.



교사회 단체사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온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방문하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든다.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가정 하에 박물관 멤버십에 가입한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해당 박물관 입장료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박물관의 입장료 할인, 특별 이벤트 초대장, 선물 가게와 레스토랑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박물관 멤버십 가입비는 세금 공제가 된다는 사실! 보스톤 인근 지역에는 가족들과 갈만한 박물관이 많으니 한번 멤버십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다음은 마미포핀스(Mommypoppins)에서 소개한 가족을 위한 혜택이 많은 뮤지엄 멤버십 5가지이다.

보스톤 과학 박물관 (Museum of Science)

과학에 대해 무지한 사람도 이 거대한 과학 박물관에서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년 내 무료 입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옴니 극장(Omni Theater)과 플라네타리움 입장권을 제공받는다. 또한 지구 전역의 400여개의 과학 센터와 동물원의 무료 혹은 할인 입장 혜택이 주어진다. 나비 정원(Butterfly Garden)과 4D극장, 주차장, 박물관 기념품 가게와 카페를 이용할 경우 할인이 되며 티켓을 끊을 때 우선권이 주어지고, 멤버 이벤트와 전시 프리뷰의 초대장, 강의 및 코스에 우선 예매권을 받게 된다. 기본 가족 멤버십의 경우 일년 회비 \$130이며 한번에 5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피바디 에섹스 뮤지엄 (The Peabody Essex Museum)

세일럼에 위치한 피바디 에섹스 뮤지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예술 박물관이다. 인터랙티브한 전시들로 꾸며져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다.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전시 프리뷰와 리셉



션 초대장, 매달 열리는 이브닝 파티와 갤러리 토크의 무료 입장권이 주어진다.

. 아이들의 경우 특별 카드를 받고 생일 날 거대한 아트리움 쿠키를 선물 받는다. 스폰서 레벨의 멤버십에 가입시 북미 660여개의 박물관과 해양 박물관 협의회의 무료입장이 가능해진다. 후원자 레벨의 멤버십 가입시 추가로 20여개의 박물관 무료입장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자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도 포함된다. 기본 가족 멤버십은 일년에 \$110이다.

보스톤 현대미술관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현대 미술의 난해함을 가족이 함께 방문했을 때 의외의 재미로 다가온다. 보스톤 현대미술관의 가족 멤버십 가입시 연간 성인 두명과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 무료입장 뿐만 아니라 미술관 인근 10곳의 레스토랑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소렐 베이커리 카페, 와가 마마, 배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소시에이트 멤버십으로 가입시 성인 4명의 입장권이 주어지고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 무료 입장 혜택 또한 받게 된다. 기본 가족 멤버십은 일년에 \$95이다.

데코르도바 조각공원 및 미술관

(deCordova Sculpture Park and Museum)

링컨에 위치한 데코르도바 미술관의 30에이커에 달하는 조각공원은 아이들이 뛰어놀며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에 제격이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무료 입장 뿐만 아니라 미술관 카페와 기념품 가게의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기념품 가게는 인근 지역의 기념품 가게 중 가장 멋진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각종 워크샵 및 강의, 투어와 이벤트 할인 또한 받을 수 있다. 멤버십 레벨에 따라 박물관 3곳의 무료 입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피바디 에섹스 미술관과 디스커버리 박물관, 시카고 미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 가족 멤버십의 일년 회비는 \$95불이다.

보스톤 미술관 (Museum of Fine Art)

보스톤 미술관의 다양한 전시관을 다 둘러보고자 한다면 멤버십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멤버십 가입시 한번 사용 가능한 게스트 입장권과 멤버 이벤트 무료 및 할인이 주어지고, 주차비 40%, 미술관 음식점 15% 기념품 가게 10%의 할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기본 멤버십의 일년 회비는 \$75이다.

sun@bostonkorea.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좋은 치과, 좋은 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바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학생들 총기 반대 시위 동참

3월 14일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 시위 보스톤 학생들 의회까지 거리 행진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총기를 더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열렸다. 보스톤 학생들도 이에 동참해 지난 14일 보스톤 및 매사추세츠 각지에서 도로 행진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2월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이었다. 학생들은 2월 14일에 사망한 17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7분 동안 교실을 떠나 거리를 걷는 시위를 계획했다.

미국 내 약 3천 곳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위가 열렸다. 보스톤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날 내린 폭설 때문에 휴교 상태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주의사당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서머빌 하이스쿨의 9학년 학생인 샘 돈스테인은 “우리랑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이다” 라고 말했다.

이날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위를 벌인 학생들 중 일부는 다른 거리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기 제조회사 스미스 앤 웨슨의 스포팅 필드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 계획이다.

미국 전역에서 열린 3월 14일 총기 반대 시위는 임파워(Empower)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다. 임파워는 지난 해 워싱턴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시위 우먼스 마치(Women's March)와 같은 소속이다.

임파워는 학생들이 스스로 집회와 거리 행진을 준비하고 계획하길 원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살상용 총기 판매 금지와 모든 총기류 판매 시 신원조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안 제정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임파워는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가 뽑은 의원들은 총기 사고에 대해서 단순히 트위터를 남기거나 기도를 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번 시위 이후에도 학교의 안전을 요구하는 시위가 워싱턴에서 3월 24일에, 콜로라도에서는 4월 20일에 계획되어 있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의 의회에 앞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



눈은 그쳤지만 전기 공급을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완전 복구앞으로 수일 걸릴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주 사이에 3번이나 몰아친 눈폭풍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 20만개 이상의 가구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전기 없이 하루 이상을 보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력 복구에 며칠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밤부터 몰아친 눈폭풍은 시간당 35마일의 강풍과 시간당 1-3인치의 폭설을 동반했다. 눈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약 24만 가구의 전력이 끊겼다. 프로빈스타운과 채담 같은 지역은 타운 전체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

도 했다. 13일 밤 기준으로 전기가 끊긴 가구의 수는 20만 904가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기 공급회사인 에버소스는 전기 공급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최소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셔널 그리드 역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전기 공급을 복구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강한 바람이다. 비록 눈은 그쳤지만 시간당 35-40에 이르는 강풍 때문에 전기 복구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가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시니어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65세 이상으로 일정소득 이하인 주택소유자의 재산세(property tax)를 주택 판매 또는 사후로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은퇴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어 적은 소득으로도 집을 포기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은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단기적인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주내 351개 타운 및 시정부 중 310개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신청자는 92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 직후 신청자에 비해 약 1200여명이 적어진 숫자이다.

주정부는 자격이 되는 주택보유자가 공시 주택가격의 절반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유예된 재산세에 이자를 최고 8%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매스주에서 마시필드는 유예 세액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뉴튼의 경우 1.75%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주정부는 소득 기준을 연 2만불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 수준은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보스톤은 소득 자격기준을 \$57,000까지 허용하며 연 4%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보스톤에는 단 28명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우스터는 1명, 스프링필드는 아무도 이 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뉴튼은 \$60,000까지 허용하며 이자도 낮기 때문에 지난해 65명이 신청했다. 이는 주내 최고 수치였다. 뉴튼은 세금고지서에 시니어 재산세 유예

안내서를 동봉했으며 시니어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외의 교외지역 타운들도 뉴튼과 유사하게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렉싱턴은 \$70,000 소득 상한에 0.8%의 이자를 부과해 지난해 41명이 이 유예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웰슬리는 \$50,000에 0.6% 이자로 총 48명이 지난해 가입했다.

이자 부과를 없앤 마시필드의 경우 아주 적은 25,000주민 중 29명이 신청했다.

보스톤칼리지 은퇴연구센터는 더 확대되고 강화된 세금유예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센터는 소득 상한을 없애 일부 힘들어 하는 은퇴자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타운 및 시정부가 유예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론 펀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매사추세츠 주 외에도 미국내에서는 12개 주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11개 주는 이 같은 세금유예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주정부 세금유예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오래된 주의 경우 자격이 되는 주택소유자의 10%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아마존 제2 본사 유력 예상

웰스 파고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예측 포브스도 보스톤이 가장 유력하다 분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이 아마존의 제2 본사가 될 것이라고 웰스 파고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예상했다. 아이에라(Aiera)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웰스 파고에서 주식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아마존은 지난 1월에 제2 본사 최종 후보지 20곳을 발표하였다. 아마존 제2 본사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고, 약 5만명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현재 시애틀에 있는 본사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고용 수준이다.

아이에라는 딥 러닝(deep learning)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한다. 아마존 제2 본사 부지를 예상할 때는 미디어의 노출과 이에 대한 반응, 아마존 주식과의 상관 관계, 매크로 분석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에라의 분석 노트에 따르면 보스톤은 아마존의 제2 본사 후보지로 뉴스에서 190번 거론 되었으며, 보스톤이 유력 후보지로 예상될 경우 아마존의 주가

가 평균 0.78% 상승했다.

보스톤의 뒤를 이어 시카고, 애틀랜다, 뉴욕 시, 토론토가 아마존의 제2 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이에라는 예측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 역시 보스톤이 아마존의 제2 본사로 선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보스톤과 주변 지역에 있는 최고 수준의 대학교들,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쉬운 인력 시장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보스톤 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통 혼잡은 아마존 제2 본사 부지 선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계속해서 공급 받기 제일 쉬운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한다면 보스톤이 정답이라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과학, 수학, 공학, 경영 분야에서 경험과 재능이 있는 인력을 보스톤보다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올해 안으로 제2 본사가 들어설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jsi@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국무교체로 북미회담 늦어질수도 6~7월 가능성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미 행정부와 백악관 참모진의 갑작스러운 인사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특히 NYT는 현재 공식인 주한 미국 대사에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 미군 사령부를 지휘했던 월터 L. 샤프, 제임스 D. 서먼 등 외교 전문가가 아닌 군 출신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WP는 전문가를 인용해 북미 회담이 6월이나 7월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NYT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한 회담이 무산될 것이라 보는 관료들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 내정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북한 외무상은 물론 한국의 외교장관과도 접촉할 수 없다. 백악관은 아직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서류 작업도 끝내지 못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 혼란을 가중시키는 건 북한이 회담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는 그가 외교적인 시작(회담)에 대한 모멘텀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보여준다고 NYT는 지적했다.

WP는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의미있는 업무들이 몇 주 안에 압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은 몇달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5월엔 이란 핵합의와 관련한 결정도 내려야 하고 이것이 북한과의 대화에 미칠 영향도 있다고 봤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를 거치며 국무부에서 세차례의 정상회담 준비를 도왔던 윌슨센터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WP와의 인터뷰

에서 "현명한 조치라면 (예정된)날짜에 뒤쳐지지 않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들은 회담을 5월에 하겠다고 했지만 6월이나 7월이 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선 시간이 필요하다. 서둘러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일이 잘못된다면 또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신중하게 준비에 임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뉴욕을 방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에 북미 정상회담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번 회담 초점이 그동안 미국이 펼쳐 온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사람에 따르면 맥매스터 보좌관은 회담과 관련한 몇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으며 경제제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함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매튜 포팅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도 그동안 북한과의 회담이 실패한 이유들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주한 미국대사도 없고 국무부도 유동적인 상황에서 포팅어 선임보좌관 등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조차 곧 떠날 것이라 소문이 돌고 있어 NSC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 내정자가 북한 정권의 제거를 얘기할 만큼 강경파라는 점도 상기했다. 또 폼페이오 내정자가 중앙정보국(CIA)에서의 경력으로 북한이 제안하는 것의 진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외교경험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복잡한 협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조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s914@news1.kr

전국 학생들이 나섰다, 총기난사 더이상은 안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이 목숨을 잃은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미 전역의 학생들이 수만명이 14일 총기 규제 입법을 거듭 촉구하며 동맹 휴업 행진을 벌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동부·중부 등 미국 각지의 고등학생들은 해당 지역 시간대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행진을 시작했다. 이는 희생자들을 기리며 17분간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많은 집회가 그보다 더 길게 진행됐다.

이처럼 대규모로 고등학생들의 동맹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큰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구글 검색어 1위는 '학교 동맹휴업'(National School Walkout)이 차지했다.

소셜미디어에는 #Enough(이것으로 충분하다) #NeverAgain(더 이상은 안 된다) #MeNext(다음에 죽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 등 해시태그를 단 관련 사진·영상들이 쏟아졌다.

학생들은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생각과 기도만으로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의미의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행진에 참여했다. 침묵 시위부터 연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됐다.

시위는 학교 인근에 국한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주요 거리와 주 의회 등으로 모여들었다. 워싱턴 학생들 수천명은 백악관과 의회 앞으로 향했다. 미 언론은 거리로 나선 학생들 중 다수가 2020년 선거에서 유권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워싱턴의 공무원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 주 플로리다주 하원에서 총기 구매연령 상향 등 일부 진전이 이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NRA이 반대하는 국가 차원 개혁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부분 학교가 학생들의 휴업 행진에 지지를 보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무단결석을 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마음인 것은 아니다. 같은 날 몇몇 학생들은 총기 소지의 자유를 외쳤다.

한 학생은 총기규제 집회 무대에 난입, 진행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수정헌법 2조를 준수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미시간주 라피어 고등학교에 모인 '젊은 공화당원' 회원들은 총기 구매 제한 연령 상향을 반대하며 "총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NRA도 입장을 발표했다. 동맹휴업 행진이 시작된 직후 NRA는 트위터를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한시간 뒤 언알아 올린 트윗에서는 "나는 내가 소유한 총을 통제할 것"이라는 글귀가 적힌 총기 사진을 올리며 NRA가 이 집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줬다고 NYT는 전했다.

seunghee@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BLISS IMAGE SALON & SPA

반 영구 확장 전문
(Now Offering Permanent Makeup)
licensed artist CHAE (MA & NY Licensed)

- 자연 눈썹(Microblading)
- 눈썹(Eyebrows)
- 아이라이너(Eye Liners)
- 입술(Lips)
- 탈모 문신(Hair Lined)
- 속눈썹 연장(Eyelash Extension)
- 피부(사마귀, 점 제거),
- 머리, 왁스

By Appointment Only

11A Corinth St. Roslindal MA 617.323.0023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월마트 가정배달 서비스 확대 아마존과의 대결 심화

(뉴욕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의 소매 유통체인 월마트가 올해 식료품 가정배달 서비스를 현재 6개 시에서 100군데 이상의 도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인 아마존닷컴과 대결하기 위해서다.

14일 월마트는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가정이 올해 말까지 40% 이상을 웃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은 최소한 30달러어치 주문이어야 하고 배달 비용은 9.95달러다. 위버 테크놀로지스 등의 기업들이 교통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다른 배송업체들도 추가될 예정이다.

톰 워드 디지털 운영본부 부사장은 기자들과의 전화에서 "우리는 이

번 조치에 아주 적극적이다"고 말했다.

월마트의 이번 조치는 현재 1200 곳에서 실시 중인 가두 픽업 시스템을 보완하게 된다. 올해 1000여군데 가더 추가된다. 아마존의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인 '프라임 나우 서비스'와도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배달 서비스 확장으로 월마트는 매장 이용자가 월마트의 온라인 쇼핑물과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월마트의 온라인 매출은 오프라인 매장 매출의 2배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홀푸드를 인수한 아마존과 더욱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이다.

아마존은 지난달 도시지역 6 곳에서 홀푸드의 음식물 배달

옵션을 확대했다. 또 다른 경쟁업체인 크로거와 타겟도 유사한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해 4분기 온라인 매출 성장이 둔화했다. 이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과의 경쟁 전략에 의문을 제기했다. 월마트의 간부들은 월마트가 올해도 전자상거래 매출이 약 40%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cenes@news1.kr



디즈니, 디지털 미래 위해 스트리밍 비디오 사업부 신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 월트 디즈니가 스트리밍 비디오와 국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새로운 사업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디즈니는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의 급성장에 따라 전통적인 미디어 운영을 개편하고 있다.

밥 아이거 디즈니 CEO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포지셔닝할 것이다"며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틀을 만들고, 전 세계 고객들에게 봉사하며, 성장을 늘리고, 주주들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에 따르면 케빈 메이어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신설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됐다. 이 부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엔터테인먼트 앤 스포츠 프로그래밍 네트워크(ESPN)와 디지털 제공 및 가족 오락물 스트리밍 서비스를 감독하게 된다.

즉시 효력이 발휘되는 이번 조치는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에서 영화, TV, 국제 비즈니스 활동 부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디즈니는 테마파크 비즈니스를 캐릭터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소비자 상품 사업부와 합쳤다. 밥 차펙 테마파크 대표가 이 사업부를 이끌

예정이다. 디즈니에 따르면 미디어 네트워크와 영화 스튜디오는 각각 독립 사업부로 남아 있을 예정이다.

디즈니는 2019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구조를 반영해 재무 보고서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cenes@news1.kr



14일 펜실베이니아주 제18 연방 하원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코너 램(33) 민주당 후보

민주, 공화당 텃밭 펜실베이니아 보궐선거서 승리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11월 중간선거의 '풍향계'로 불린 펜실베이니아주 제18 연방 하원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신승을 거뒀다. 펜실베이니아는 공화당 텃밭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펜실베이니아주 보궐선거에서 코너 램(33) 민주당 후보가 49.8%의 득표율을 기록해 리 서컨(60) 공화당 후보(49.6%)를 눌렀다.

램 후보가 11만3111표, 서컨 후보가 11만2532표를 얻어 표차는 겨우 579표에 불과하다. 부재자 투표 결과가 아직 합산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후보 캠프 측은 램 후보의 표가 400표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램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해냈다"며 "오늘 밤 되찾은 우리의 목소리를 축하하자"고 말했다. 서컨

후보는 아직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공화당의 텃밭이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포인트 격차를 낸 곳이다.

선거 초반엔 당연히 서컨 공화당 후보가 우세했다. 하지만 30대 젊은 혈기를 내세운 램 후보가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등 중도 노선을 내세우면서 선거 판세가 뒤집어졌다.

램의 승리는 광산과 철강 노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컨 후보는 노조와 마찰을 빚어왔다. 민주당에서도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사로잡은 램의 전략과 중도적 정치 노선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선거 결과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yjyj@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2018 전국 수학 경시대회

재미 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석과 후원을 바랍니다.



날짜
2018년 4월 7일 (토요일)
Check-in at 12:30pm
온라인 등록 & 정보
<http://ksea.org/NMSC/>

장소
MIT
Building 4 Room 163
182 Memorial Drive
Cambridge MA

참가비
Online: \$25
on-site \$30

온라인 등록 기간
2018년 2월 5일 - 3월 30일

공동 주최
MIT KGSA,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협의회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점심 부페 시작!
월-토: 11:30~2:30
일, 공휴일: 12:00~3:00

불판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습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MB 영장에 무게 檢, 김윤옥 여사 뇌물수사까지 직행할까

4월초 기소 가닥, 이르면 금주 구속영장 청구 예상 김윤옥 여사 특활비 뇌물 등 추가수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약 2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설령 있었다고 실무선의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로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영장 청구에 이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 부인인 이윤옥 여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오전 9시50분쯤부터 14시간여 만인 밤 11시56분쯤까지 신문 받았다. 이후 6시간여에 걸쳐 신문조서를 챙겨본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25분쯤 검찰청사에서 나와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과 차명재산 의혹 등 다스 실소유주 관련 정황 등에 대해 먼저 조사 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ABC상사,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등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도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장시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뇌물 혐의와 연관된 다스와 도곡동땅 차명재산 등에 대해서는 '나와 무관하다', '내 소유가 아니고 경영 등에 개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있었다고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중요한 구속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100억원대의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을 의심받는 만큼 혐의의 중대성도 인정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현시점에서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진행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김 전 기획관 외 향후 관련자 기소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검찰 측은 "공범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소는) 4월초쯤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방조범'으로 적시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을 4월초로 잠정 계획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소 시점이 4월초라면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부인한 부분 등과 관련한 혐의를 다지고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실무선에 전가한 만큼 주요 혐의 관계자 등 측근들이 추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거나 기존 증언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가신'으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중이던 시간 자신의 첫 재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건의 전모가 국민들께 알려지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은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수사 협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보강 수사 중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김윤옥 여사(71)에 대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전무에게 전달한 14억5000만원의 자금을 쫓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MB정부 시절 전 해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앞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김 여사 측에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함께 2007년 대선 직전 한재미 사

업가부터 돈 다발이 든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추가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김 여사까지 공개 수사를 하기에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는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를 통해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yjra@news1.kr

신입회원 및 학생회원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보스톤 중앙대 동문회 제22차 정기총회

일시: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수라 바베큐 보스톤(구 청기와)
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35

문의처: 회장 이기환 (781.270.4627)

동문들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고자 동문님과 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제 22차 정기총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청룡 중앙인의 사랑과 화목의 자리를 빛내주시고 명수대 언덕 추억의 강가를 함께 거니는 보스톤 중앙인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BOSTON 중앙대학교 동문회원 (순서없음)					
김정숙(경제54)	한운영(심리55)	김섭(사사62)	신영각(경영대학원)	이진주(화학60)	김재숙(화학64)
이경빈(신방59)	김광수(정외75)	박성균(심리64)	김유상(국문64)	이기환(광산65)	강천성(기계70)
김옥식(심리77)	김세형(화공77)	한호순(문창84)	이시원(약학83)	윤정우(약학62)	김아람(사진87)
이상현(경영62)	조재석(디자인91)	강윤주(조소91)	유경렬(철학88)	유영란(불문87)	장승훈(건축공학70)
이재석(토목89)	김배규(피아노96)	이여름(무용97)	유혜경(음악대학원98)	최에스더(행정대학원86)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R. 16 - MAR. 22, 2018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FRIED SHRIMP TOAST

CRISPY OUTSIDE, SOFT INSIDE! THIS FRIED SHRIMP TOAST IS HEAVENLY FOR YOUR SAVORY CRAVING!

노릇노릇한 식빵 안에 새우살이 한가득 들어있는 식감좋은 에피타이저, 멘보샤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hare it @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hmartusa

Follow us @hmartusa



<p>Korean 3pack Singo Pear 한국산 3팩 신고배</p> <p>\$8.99 3cmt /pkg</p>	<p>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p> <p>\$1.49 lb.</p>	<p>Crown Broccoli 크라운브로콜리</p> <p>\$0.99 lb.</p>	<p>Ginger 생강</p> <p>\$1.29 lb.</p>	<p>Gobo 우엉</p> <p>\$1.99 lb.</p>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p> <p>\$1.49 lb.</p>	<p>Packed Garlic 팩마늘 5cmt/pkg</p> <p>3\$3 pkg/for</p>	<p>Nagaimo 일본 마</p> <p>\$4.99 lb.</p>	<p>JAFFA Mandarin 자파 만다린</p> <p>\$1.99 lb.</p>	<p>JINGJA Tofu 친가네 두부 Firm/Soft - 16oz /pkg</p> <p>\$0.99</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스테이크</p> <p>\$6.99 lb.</p>	<p>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등심</p> <p>\$4.99 lb.</p>
<p>Whole Chicken 종닭</p> <p>\$1.79 lb.</p>	<p>Beef Bones 냉동 사골</p> <p>\$1.29 lb.</p>
<p>Beef Sliced Ribeye Roll for Bulgogi 냉동 소불고기</p> <p>\$6.99 lb.</p>	<p>Marinat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목살 스테이크</p> <p>\$4.99 l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Mackerel 고등어 400-600g</p> <p>\$2.99 lb.</p>	<p>TONGTONGBAY Unagi Kabayaki 통통배 우나기</p> <p>\$9.99 10oz/10pk</p>
<p>Head-on Shrimp 머리 새우 30-45%</p> <p>\$5.99 lb.</p>	<p>Milk Fish 밀크피쉬</p> <p>\$1.99 lb.</p>
<p>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통통배 절반 꽃게 2.0~2.5 lbs. /pkg</p> <p>\$6.99</p>	<p>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p> <p>\$6.99 lb.</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대 18 lb.</p> <p>\$10.99</p>	<p>I WANT Bath Tissue 아이원브 화장실 화장지 20roll/pkg</p> <p>\$9.99</p>
<p>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68.8 oz.</p> <p>\$14.99</p>	<p>ORGANIC VALLEY Organic Milk 통기차 밸리 무지방 우유 White 1% Lowfat/Chocolate 1% Lowfat - 4.75L (1.25L x 4) 946g</p> <p>\$12.99</p>
<p>CJ Cooked White Rice CJ 밥만 7.5oz. x 12pk/box</p> <p>\$12.99</p>	<p>SAWYANG Spicy Fried Chicken Noodle 삼양 불닭볶음면 4.8oz x 200 15kg</p> <p>\$5.99</p>
<p>SPAM</p> <p>2\$5 cans/for</p>	<p>HAP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인삼 닭가슴살 찜개탕 1.76 lb.</p> <p>\$9.99</p>
<p>LOTTE Chef Special Dum Red/Black/White/Pink - 17.7oz</p> <p>2\$5 ea/for</p>	<p>TOGEN Tea Drink 에도엔 티 드링크 All Weather/ST 01oz</p> <p>\$3.99</p>
<p>LOTTE Chef Special Dum Red/Black/White/Pink - 17.7oz</p> <p>2\$5 ea/for</p>	<p>SUNHAK Electric Pad 선학 한국산 전기요 S/NH 200x1000 x 1800mm</p> <p>\$39.99</p>

HELLO HOME Hello Spring! SPECIAL SALE

MARCH 16 ~ 25, 2018

<p>WATER SLOW JAR \$59.99</p>	<p>4-PARTY 2400WATT \$39.99</p>	<p>40% OFF</p>	<p>30% OFF</p>
--	--	-----------------------	-----------------------

<p>DONWON Canned Tuna with Pepper Sauce 동원 고추장치 통조림</p> <p>\$7.99 5.4oz x 4000 /pkg</p>	<p>HAI REUM Korean Style Noodles 해오름 육국수 2.1lb.</p> <p>\$4.99</p>
<p>HAI REUM Japanese Style Noodles 해오름 냉동 우동</p> <p>\$2.99</p>	<p>HAI TAI Peanut Crunch Snack 해태 땅콩산 11.46oz</p> <p>\$2.99</p>
<p>HAI REUM Dumpling 해오름 만두 Red/Black/Vegetable - 2.65 lb.</p> <p>\$4.99</p>	<p>DONGWOO Living Art 동우 리빙아트 굿비 그린 동우 리빙아트 구피 석쇠그릴</p> <p>\$12.99</p>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slight price change.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goo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good sale item. All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2018 H-MART BURLINGTON STORE: 3 Edo Center Pl., Burlington, MA 01803/TEL: 781-321-43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정봉주, 민주당 복당 재신청, 성추행 의혹은 허위

성추행 의혹 부정 기류, 서울시당→중앙당 신청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기자 지방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15일 프레스미팅의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다시 신청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직접 복당 신청서를 냈다. 그는 원래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뒤 중앙당 심사를 요청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복당을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서울시당

심사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당 심사로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연인 공천 의혹 등이 터지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입장문에서 "프레스미팅의 보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보도임이 명백한 사실은 복당 신청을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BBK 진실 폭로가 민주당 당

헌·당규 등에 명백히 어긋난 행위라거나 개인적 비리·이권개입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당이 복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주장이 담긴 대리인 의견서도 중앙당에 함께 냈다. 의견서에서 과거 BBK 관련 주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의혹 제기 처벌받을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복당 신청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 멸실 원인을 먼저 따져서 그 원인이 소멸됐다면 (성추행 의혹은) 별건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당을 해 놓고 문제가



정봉주 전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 관계자에게 복당 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된다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거나 서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서울시당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당원자

이병기 국가 위해 특활비 쓰인다 기대, 차에 배신감 느껴

이병호, 개인비리 아닌 오랫동안 미비된 제도 문제

(서울=뉴스1) 문창석, 이균진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72)이 "(특활비가) 국가를 위해 쓰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반대로 쓰인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까지 느껴진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장호)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병기 전 원장은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 것에 대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병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중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다만 특활비가 국정 활동에 적법하게 사용될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고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계에 비추면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청와대를 지원하고,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격려금을 사용하는 것과 진

배없다"고 강조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 되자마자 범죄를 저지른 입장이 됐다"며 "지금 3명의 전 원장이 법정에서 있지만 이는 개인 비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미비된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 나라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는 나라겠나"라며 "뇌물 혐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추후 입장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호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특활비를 지급한 것은 전임 원장 때도 지원했다는 말과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대통령에 뇌물을 준다는 인식과 국고손실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에 지급한 자금은 국정 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용처를 물어볼 수도 없었고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생각도 못했으며 새누리당 여론조사에 (특활비가) 사용된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77)은 "직무 대가성 등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에 의해 적시된 공무원이 나인지 박 전 대통령인지 검사가 특정해주면 논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를 횡령한 것이라면 그게 뇌물에 해당하는지 재판장이 살펴봐 달라"며 "저는 평생 공무원을 해온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마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 서니 제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지 죄송스럽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남재준 전 원장(75) 측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측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5월 청와대 측 요청을 받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현수 전 기조실장과 공모해 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하고, 경우회 자회사 경안협업을 물류관리계약 중간에 끼워 넣어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5억6497만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5억원, 이원종 전 실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해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asd123@news1.kr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행복하고 싶다면 핀란드로 한국, 세계행복지수 57위

행복지수 상위국가, 주로 북유럽, 2위 노르웨이 日 54위·中 86위, 핀란드, 이민자 행복지수도 1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이 세계에서 57번째 행복한 나라로 조사됐다. 1위는 이민자와 내국민이 비슷한 행복도를 보이는 핀란드가 차지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14일 전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 2018'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복지수 상위국은 주로 북유럽에 위치했다. 10점 만점에 7.63점을 얻은 1위 핀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순이었다.

또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가 10위권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순서만 달라졌을 뿐 지난 조사 때와 동일하게 10위권 명단에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87점을 받아 57위에 올랐다. 5.838점으로 55위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순위는 2계단 떨어졌으나 점수는 약간 올랐다.

미국은 작년에 비해 4계단 떨어진 18위를 기록했다. 독일 15위, 영국 19위, 일본 54위, 중국 86위였

다. 내전과 기아에 시달리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가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복지수는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각각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선택의 자유 △사회적 관용 △부패 수준이다.

올해 보고서는 처음으로 세계 117개국 이민자들의 행복지수도 조사했다.

이민자 행복지수도 1위는 핀란드에 돌아갔다. 이뿐만 아니라 이민자 행복지수는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의 행복은 현재 사는 곳의 삶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람들은 이주한 국가의 평균 행복 수준에 적응한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세계행복보고서 2018에서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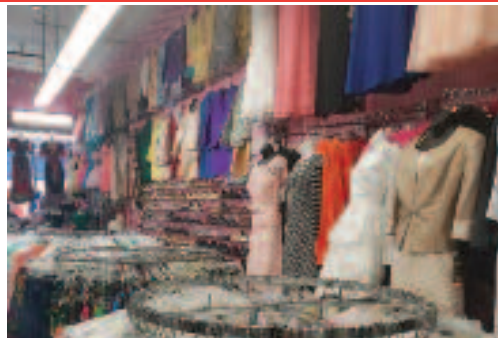
Featured Business Listing



카페 매매

보스톤에서 성업중인 Cafe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카페 매매
번잡한 좋은거리. 장기리스 가능

Asking **\$340,000**



옷가게 매매

보스톤에 위치한 옷가게 매매
인벤토리 포함, 2,000 Sq. Ft.

Asking **\$150,000**

NEW LISTINGS

Commercial

건물 매매
보스톤 남쪽,
세탁소 입점된 단독건물
세탁소와 함께 구입 가능
Asking **\$385,000**

Residential

앤도버 콘도 매매
럭셔리 타운하우스
3852 sqft, Bed:3 Bath:4,5
필립스아카데미 5분거리
Asking **\$995,000**

Commercial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Fish Market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000 이상, To-go매뉴 Extra 수입,
소비자 리뷰가 매우 좋은 가게, 넓은 주차공간
Asking **\$180,000**

Business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부 Full Plant, 크기 2,000 Sq. Ft.,
보스톤에서 30분 거리, 25년간 성업중,
Shopping Center 안에 위치,
매상 \$250,000
Asking **\$23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세탁소 매매
좋은 동네, 안정된 고객층
800 Sq. Ft. 년 매상 \$180,000
Asking **\$130,000**

Business

세탁소
Brookline 좋은 위치
연매상 \$220,000 이상, 보장된 수입
1년된 Hydro Carbon 기계
Asking **\$230,000**

Business

코인세탁소 매매
보스톤에서 15분거리에 위치한 코인세탁소
년 매상 \$350,000+, 2,500 Sq. Ft.,
안정된 매상, 고객층 및 여유로운 주차장
Asking **\$450,000**

Business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Condominium
120 Parker St. - Unit 26
Acton, MA
Asking price: \$189,900
Listing Agent: Laura Rakauskas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Town House/Condo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Asking price: \$284,9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6 Abbey Road - Unit 17
Sherborn, MA
Asking: \$3,750/mo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905C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Asking price: \$61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1731 Beacon St. Unit 301
Brookline,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Rental
69 Qunit Ave. - Unit 26
Boston,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Town House Rental
53 South Walnut St. - Unit 2
Quincy, MA
Asking price: \$2,3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Meadow St.,
Dedham, MA
Asking price: \$599,9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3 Larch Rd.
Ac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Teresa Vitelli
781.619.0473



Johanna Parlon
978.501.4753



M. Keith Peifer
304.963.292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시너지성형외과'

볼륨과 탄력있는 동안 얼굴을 만들어주는 "지방이식"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동안 얼굴이 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지방이식에 대해서 휴람 네트워크 시너지성형외과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처지는 피부와 주름, 얼굴 전반의 볼륨 저하로 고민인 이들이 적지 않다.

물론, 노화가 아니어도 어린 나이에도 얼굴 볼륨이 밋밋한 분들은 한 번쯤은 얼굴지방이식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것이다.

지방이식수술 중 하나인 'PRP지방이식'은 자기지방세포와 PRP를 함께 이식하는 시술로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PRP혈소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가조직 치유물질인 성장인자의 영향으로 지방세포가 활성화돼 콜라겐의 탄력섬유가 증가되고, 생착률이 높아짐에 손상된 피부개선과 노화된 피부를 젊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특히 자신의 신체에서 채취한 지방을 주사기를 통해 주입하여 얼굴 볼륨을 살리는 시술로 흉터 걱정이 없고 이물질로 인한 거부반응이나 염증 등의 부작용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밋밋한 얼굴에 볼륨을 주어 탄력 있는 동안 얼굴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안면윤곽술과 같은 뼈를 깎는 수술 없이도 얼굴 전반에 걸친 지방이식을 통해 얼굴라인 개선 효과와 얼굴이 입체적이고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안면비대칭 있을 경우엔 해당 부위에 지방을 이식하여 개선이 가능함으로써 밋밋했던 얼굴에 입체적으로 볼륨이 살아나기 때문에 인상이 뚜렷해진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 해도 해당 분야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아니라면 과사, 염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반드시 해당분야 오랜 경력과 실력을 갖춘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 후 시술을 결정해야 한다.



다.

◆ PRP지방이식술이란?

복부나 허벅지, 힙 라인의 축적된 지방을 채취하여 원심분리기를 통해 순수 지방만을 뽑아 얼굴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본원에서는 단순히 얼굴의 꺼진 부위에 지방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입체감을 살리고 생착률을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시술한다.

◆ PRP지방이식술 대상

- 얼굴에 살이 없어서 윤곽이 두드러지는 경우
- 전체적으로 어려 보이고 싶은 경우
- 불살의 꺼짐이나 팔자주름으로 인해 나이 들어보이는 경우
- 얼굴 윤곽에 굴곡이 없고 전체적으로 밋밋한 경우
- 이마, 광대 눈 밑 등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

◆ PRP지방이식 수술방법

1.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볼륨이 부족한 부위를 디자인한다.
2. 지방이 많은 복부나 허벅지의 불필요한 지방을 채취한다.
3.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순수한 지방만을 추출한다.
4. 순수한 지방과 혈액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부위에 지방을 주입한다.

◆ PRP지방이식 장점

- 입체감이 살아나는 매끈한 얼굴과 피부 탄

력의 증가로 동안효과를 얻는다.

- 지방채취에서 이식까지 공기접촉 최소화로 생착률을 높였다.
- 특정부위에 축적된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여 슬림효과를 얻는다.
- 가자조직이므로 다른 인공 보형물이나 필러와 달리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

◆ 지방이식술 전 후 주의사항

- 시술 4시간 전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금식한다.
- 복용중인 약물은 반드시 미리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 시술 당일엔 편안한 복장으로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준비한다.
- 귀가 시 자가운전보다는 대중교통, 보호자 동반을 권해드린다.
- 시술 전 3일간 금주, 금연한다.
- 지방이식 부위에 충격을 주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술 후 2~3일은 냉찜질을 해주고,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리는 자세를 금한다.
- 회복기간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이식한 지방이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사지나 경락은 시술 후 1~2달 이후에 가능하다.
- 지방을 빼 부위의 빠근함은 일주일 정도 후 없어지며, 수술 후 온찜질을 하는 것이 멍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
- 4주 정도는 금연, 금주 해야한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우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Jay Lee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금주의 LISTINGS



Dedham에 위치. 새로 renovate된 Single Family House (7 bedroom/4 bathroom, finished basement)
방이 많은 집이 필요하시분에 적격 **ASKING \$7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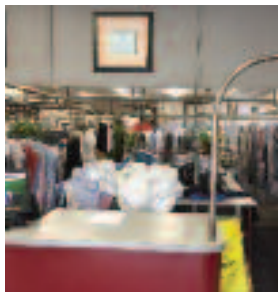
LISTINGS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95,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49,000



보스턴 남부지역 성황리 영업중 풀 풀랜트 세탁소
ASKING \$160,000



로드 아일랜드 성업중인 스시 식당 주인 리타이어
ASKING \$280,000



Single Family in Quincy Guest House에 적격 4 B/R, 2 1/2 Bath
ASKING \$589,000 Rent도 가능: 월 \$2,8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TEL. 617.467.5218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건국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치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요금정보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근로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연합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스프링필드교회협의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우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짐승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김택은 Realtor	617-789-9330
백영주미용실	978-239-0141
송기백미용실	781-510-9924
송현미미용실	617-835-7664
순옥원미용실	508-737-8636
신현철미용실	617-947-6293
엘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미용실(EXT. 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Premier Ralty Group	617-642-3156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드)내과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중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PR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포스페이

지난 한해동안 성원해 주신
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 무술년 한해에도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 절약 사례>

- 본손: 20% 절약
- 돼지공: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상위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ne's Doubly Parish of Korean Church

성목요일 (3/29)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3/30)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3/31)
9pm-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1)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56
617-558-7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IT'S TIME TO TRAVEL

4989 부동산 매매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지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지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S등급 병원(최고 등급)

H+ 양지병원

새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도약한 H+ 양지병원은 350 병상 확충과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 우수전문의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 양지병원

151-852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10-715



입원 종합검진

100 / 105
남: 70만원 / 여: 80만원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흉부 (폐) CT	1. 갑상선 초음파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전립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암표식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대장내시경(수면)	4. 골밀도 검사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5. 대장내시경(수면)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VIP 입원 종합검진

250 / 260
남: 225만원 / 여: 235만원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기본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뇌 MRA	1. 뇌 MRA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뇌 MRI	2. 뇌 MRI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관상동맥 CT	3. 관상동맥 CT
4. 암표식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흉부 (폐) CT	4. 흉부 (폐) CT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5. 심장 초음파	5. 심장 초음파
6. 요 검사 10종	6. 갑상선 초음파	6. 갑상선 초음파
7. 체지방 검사	7. 경동맥 초음파	7. 경동맥 초음파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8. 전립선 초음파	8. 부인과(자궁) 초음파
9. 소화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9. 유방 초음파	9. 유방 초음파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0. 대장내시경(수면)	10. 골밀도 검사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1. 대장내시경(수면)

당일 종합검진

70 / 80
남: 55만원 / 여: 65만원

당일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흉부 (폐) CT	1. 갑상선 초음파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전립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암표식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골밀도 검사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V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 PET CT + 복부조영CT + 비타민D & 호르몬 + 호모시스테인(심혈관질환, 중풍원인인자)

남: 370만원 / 여: 390만원

VVIP, VIP 종합검진 고객 : 픽업서비스 제공

- ① 인천공항 픽업 : 인천공항 도착시간 오후 5시30분까지 제공
- ② 인천공항의 픽업 : 서울지역 내의 장소에서만 픽업 가능
- ③ 토, 일, 공휴일 픽업 진행 불가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8:30am~12:30pm (축제공)
- 입원 종합검진: 3pm~입원2일째 1pm(1박 2일) 1인실(세면도구셋트, 축제공)
- VIP 종합검진: 2pm~입원2일째 1pm(1박2일) 1인실(세면도구셋트, 축제공) / 픽업
- VVIP 종합검진: 2pm~입원2일째 1pm(1박2일) 1인실(세면도구셋트, 축제공) / 픽업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017-955-9112

"파격 변신" '나의 아저씨' 아이유 차갑고 메마른 눈빛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나의 아저씨' 아이유(이지은)의 단독 티저 영상이 전격 공개됐다.

이지은은 오는 21일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 (극본 박해영, 연출 김원석)에서 펍리한 현실을 온몸으로 버티는 차갑고 거친 여자 이지안으로 분한다.

공개된 영상은 엘리베이터를 나서는 지안의 뒷모습에서 시작된다. 바닥을 내려 보는 듯 살짝 굽어진 어깨, 낡은 스니커즈를 신은 시린 발목, 질끈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메마른 옆얼굴까지. 짧게 이어지는 찰나의 컷들이 펍리한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는 지안의 캐릭터를 고스란히 암시한다.

이어 싸늘한 겨울 거리로 나선 지안.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울리는 곳으로"라는 마지막하고 답답한 목소리가 영상을 타고 흐른다. 한숨을 내쉬거나, 어두운 계단에 홀로 주저앉은, 혹은 다급하게 거리를 내달리는 지안의 각기 다른 모습



과 내레이션이 어우러지며 그녀의 삶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한다.

무엇보다도 영상 말미에 클로즈업된 상처 가득한 지안의 얼굴과 차갑고 메마른 눈빛은 강렬한 잔상을 남긴다. '나의 아저씨'를 통해 파격 변신을 시도해 기대를 모은 이지은이 이지안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이다. 선배 배우인 이선균 배우 이지은의 굉장한 필모그래피가 될 것"이라는 전언처럼, 그녀의 연기에 대한 기대가 가장 증폭되는 순간이다. 과연 이지은이 이지안이란 캐

릭터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나의 아저씨'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삼형제와 거칠게 살아온 한 여성이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탄탄한 배우 라인업과 김원석 감독과 박해영 작가 등 믿고 보는 제작진의 만남으로 2018년 새로운 웰메이드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마더' 후속으로 오는 21일 오후 9시 30분 처음 방송된다.

breeze52@news1.kr



'예쁜 누나' 안판석PD "시청자, 연애한듯 영혼이 뒤흔들렸으면"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예쁜 누나' 안판석 PD가 '진짜 연애' 이야기로 JTBC 흥행사를 이어나간다.

오는 30일 처음 방송되는 JTBC 새 금토드라마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이하 예쁜 누나)' (극본 김은, 연출 안판석, 제작 드라마하우스, 콘텐츠 츠케이)는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던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서 만들어갈 '진짜 연애'를 담은 드라마. 깊은 의미와 섬세한 감각을 모두 담은 연출로 믿고 보는 안판석 감독이 '아내의 자격', '세계의 끝', '밀회' 이후 JTBC에서 4번째로 만드는 작품으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밀회'로 JTBC 드라마에 한 획을 그은 안판석 PD. 4년만의 JTBC 복귀작인 '예쁜 누나'를 통해 전작과는 결이 다른 평범한 여자와 남자의 진짜 사랑 이야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믿고 보는 연출의 대가 안판석 PD는 " '예쁜 누나'를 끝까지 본 시청자들이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한번 한 것처럼 영혼이 뒤흔들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날카로운 사회 풍자를 매번 신선한 연출로 그려냈던 안판석 감독이기 때문에 로맨스 드라마 '예쁜 누나'는 어떤 섬세한 연출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지 더욱 궁금해진다.

ichi@news1.kr

3월 18일 - 3월 2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p> <p>●운수: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가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금전: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쌓아가야 합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중요한 것이 보이고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애정: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0, 22일 길일. 18, 24일 주의.</p>	<p>소띠 공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p> <p>●운수: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에 노를 저어야 앞으로 쪽쪽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금전:공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재물이 늘어나는 운세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도 좋은 기회가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내 발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줍니다. 느낌이 오거나 끌리는 대로 간 곳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행운이 따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8, 20일 길일. 19, 21일 주의.</p>	<p>범띠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야</p> <p>●운수:지금 찾은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한동안은 다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아낌 없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은 나가지만 인심을 얻으면 나중에 더 큰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애정: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표현하지 마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9, 24일 길일. 18, 20일 주의.</p>
<p>토끼띠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p> <p>●운수: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금전: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직관에 따라가 보세요.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합쳐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0,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용띠 한번 만 더 생각해야</p> <p>●운수:거대한 폭풍우도 시간이 지나면 그치고 날씨가 맑아 지듯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금전:돈을 쓰기 전에 한번 만 더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과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애정:같이 살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뱀띠 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p> <p>●운수:여러 사람의 말을 듣다보면 더 헛갈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당장은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 이치가 언젠가는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애정: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p>
<p>말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p> <p>●운수:내가 아는 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금전:현실에 맞는 지출만 해야 합니다. 기분대로 쓰다가는 큰돈이 빠져나갑니다. ●애정:가까운 곳에 두고도 쉽게 찾지 못해서 헤맬 수 있습니다. 본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양띠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가</p> <p>●운수:밝고 환한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그냥 받은 것이 있으면 값어치는 마음의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먼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애정: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가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진전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원숭이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p> <p>●운수:미리 메모를 해놓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중요한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금전: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손해 보기 쉽습니다. ●애정:안 맞는 구두를 신으면 발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안 맞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1일 길일. 20, 23일 주의.</p>
<p>닭띠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p> <p>●운수: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견주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금전:가급적이면 변화를 주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애정: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겉으로 좋게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4일 주의.</p>	<p>개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p> <p>●운수: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물갈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당장의 이득보다는 믿음을 주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언젠가는 빛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애정: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과거부터 정리하세요. 헛 구를 다 빼내고 방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4일 길일. 21, 22일 주의.</p>	<p>돼지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p> <p>●운수:지레 겁먹고 몸을 사리지 마세요. 미리 걱정을 하면 할수록 좋은 기회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금전: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기억하세요. ●애정: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은 속이지 못하니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2, 24일 길일. 21, 23일 주의.</p>

구직

광고 문의 617-254-4654

집 또는 오피스 청소 전문
 무료 견적, 20년 경험, 추천서 가능
 T. 781-289-5552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빌보드 · 타임 · BBC, 빅뱅 "영향력 ↑"
 군입대 · '꽃길' 대서특필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미국 빌보드, 타임, 영국 BBC 등 영향력 있는 외신들이 빅뱅의 신곡 소식과 멤버들의 근황을 앞다퉈 대서특필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빌보드는 "빅뱅이 신곡을 깜짝 공개, 제대로 '꽃길' 을 걸었다" 며 "이 곡은 빅뱅이 군입대로 인한 공백기를 염두하고 팬들에게 당분간 건네는 마지막 인사다" 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빅뱅은 지난 2007년 이후 K팝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 며 "그룹과 솔로 활동을 통해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남다른 발자취를 남겼다" 고 호평했다.

최근 빌보드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 영국 공영 'BBC' 방송 역시 빅뱅 멤버들의 입대 소

을 크게 다루며 이들의 여전한 인기를 드러냈다.

타임은 "K팝 스타 지드래곤이 군 복무를 시작했다. 그의 부대는 현재 혼돈에 빠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BBC 또한 지드래곤에게 쏟아지는 위문편지 때문에 부대 업무가 마비된 상태를 집중 조명하며, 지드래곤의 위상을 재확인시켰다.

이처럼 국내의 팬을 비롯해 유수의 외신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빅뱅은 13일 오후 6시, 신곡 '꽃길'을 발표했다.

음원 발표 직후 8개 실시간 차트 1위 '올킬' 을 달성한 데 이어 해외 아이튠즈 28개국 앨범차트 1위까지 거머쥐며 영원한 클래스를 입증하고 있다.

hnh1@news1.kr



'라디오스타' 이상화 "경기 준비하면서 방탄소년단, 엑소 노래 들었다"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라디오스타' 이상화가 올림픽 경기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14일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이상화, 곽윤기, 임효준, 이승훈이 출연해 평창 올림픽 관련 다양한 일화를 소개했다.

경기를 준비하면서 무슨 노래를 듣냐는 질문에 "준비하면

서 텐션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발라드는 안 듣는다. 방탄소년단, 엑소 노래를 많이 들었다" 라고 했다.

윤종신은 "종니" 같은 노래는 절대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묻자 이상화는 "사실 음악 목록에 '종니'가 있지만 나오면 바로 넘긴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europa@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휴람 안 종합검진 (베이직 : 소요시간 30~40분 / 프리미엄 : 1시간 30분)

40대가 되셨다구요? 눈도 몸처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 1) 휴람 베이직 안검진 : **10만원** (10여 가지 검사)
 - 시력상태, 백내장, 녹내장, 망막이상여부 기본질환 유무 확인
 - 기본시력검사 (나안, 안경처방, 타각적, 굴절력, 노안) + 세극등현미경, 안압, 안저촬영
- 2) 휴람 프리미엄 안검진 : **25만원** (50여 가지 검사)
 - 각막부터 시신경 망막 구석구석까지 안 정밀검진, 2년마다 한번씩은 필요합니다.
 - 휴람 베이직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 망막 + 기타 안정밀검사 포함

2 노안 잡는 노인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해결)

오래 사용하신 노화된 백내장 수정체 대신 깨끗한 뉴~수정체로 바꿔 시력을 되찾으세요~
신문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1) 노안교정 백내장 : **299만원** (양안)
- 2)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백내장 : **640만원**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다구요?
노안이 와도 레이저 라식라섹수술로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프로젝트!! (노안 해결)

150만원 (프리미엄 안검사 포함)

4 2030 라식라섹

130만원 (DNA(10만원 상당), 안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가능합니다.
※ 수술에 제반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종합검진 진료후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다면...**

20~30대 여러가지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
한 노안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등을
돋보기를 통해 봐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화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817-955-9112



바른자세를 위한 3S-스트레칭

한국인은 새우등이 되기 쉬운 체형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신체를 펴주는 것으로 부터 등 부분에 S자를 안마시의 시점으로 포착해 스트레칭이 가능한 상태로 유도합니다.

내 체형에 알맞게 3S-광센서 검색

전신의 어깨 위치를 검색하여 있는 [주무름]을 핀포인트로 포착한다.

- 견인 주무름
- 목 주무름
- 견정 주무름
- 골반 마사지
- 허리 주무름
- 다리 주무름
- 팔 마사지

기분좋은 안마의자 3S-쾌적기능

보다 기분 좋은 마사지를 전해 드리기 위해 미세한 부분까지 쾌적함을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편하고 쉽게 3S-기능

어떤 사용자라도 누워서 간편히 조작 가능한 편안한 리모컨



MEDICAL CHAIR 3S
Stretch & Smooth for Smassage

당신의 신체를 위한 새로운 습관
S-레칭하다.

S-레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자세를 서포트하는 독자적인 스트레칭으로 복부의 유연성에 착안 스트레칭 각도와 바물을 도입하여 복부의 Inner Muscle(안쪽 근육)에 작용하는 운동이 행해집니다. 게다가 등을 펴올리는 동작에 따라 심호흡을 촉진하고 횡경막의 스트레칭도 가능하게 합니다.



“ 컴팩트한 스타일로 어떤 공간에서도 산뜻하게! ”



Special Sale
~~\$6,000~~
\$4,300

“ NASA에서 개발된 우주복 재질로 전기 장치없이 보온이되며, 전문 의사가 개발하여 잠자면서 스트레칭 되는 매트리스! 60년 전통 명품 매트리스 **MAGNIFLEX**가 매트리스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



“누우면 몸의 곡선에 따라 편안하게 바쳐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서히 스트레칭시켜 줍니다”



60년 전통 이태리 **名品**
매그니 플렉스 침대

- [다음과 같은 분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자고 나면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결리는 분!
 - 딱딱한 O 침대를 장기간 사용후 생긴 신경통및 허리통증에 시달린 분!
 - 목과 허리 디스크환자에게 스트레칭 기능으로 디스크 생성!
 - 전자파에 민감하여 O 침대와 전기요등 사용시 개운하지 않은 분!

ORDER NOW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저빌드 한양빌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점 문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B3,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Elli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인컨도넛 매점앞)
201-941-0010

신영의 **세상 스케치**

637회

여행이 주는 삶의 또 다른 선택...

우리는 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날마다 허덕이다 내일을 맞는다. 내일의 오늘도 어제와 별 다를 것이 없는 비슷한 또 하루를 지내기가 쉽다. 하지만 어찌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있을까. 다만,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의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 찾으려 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나를 맡겨버리는 어리석음. '아마도 그것마저도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삶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운명지어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에 대한 체념이나 좌절 그리고 포기 끝내고 싶은 때도 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삶의 가치가 확고하다면 삶의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절대가치를 그 자체에만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선택과 운명'이라는 과제가 삶에 주어질 때,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과 나'라는 것에 집착하듯 '비교'를 떠올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 운명에 맞길 채 하루를 무의미

하게 흘러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운명이란 것에 순응하면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가?" 가 아닌, "어떻게 사는가."

"그 운명지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가끔 '여행'을 떠올리면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혼자만의 호젓한 시간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린다. 가끔은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에게 따라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정말, 그럴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있었을까."

이럴 때, 나는 가끔 '선택과 운명'을 또 떠올려 본다. 내가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이다. 두려움에서 과감히 선택하지 못하고 미뤄두고 미련을 가지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운명이라고 치부하면서 살아온 나의 삶, 나 자신의 용기가 없어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만, 선택

밖에 놓였던 나의 삶과 가뒤편이었던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무참히도 짓밟아 버린 나 자신 속의 깊은 또 다른 나를..."

보이지 않지만 억울해서 울부짖는 내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 억울한 자신의 분노는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고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 자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꼭꼭 담아두기만 했던 '화'의 덩어리는 그렇게 쌓여서 풀어지지도 않을 만큼... 일찍이 그 화를 표현하고 자신이 식혔어야 했을 덩어리였다. 그 식이지 못한 화들이 가끔 꿈틀거리면 자신을 들볶고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그 화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 옛날 '화병'에 앓고 속앓이를 했듯이, 그 많은 나라 중에 주부들이 '화병(火病)'을 심히 앓았던 나라이기에 그 병명을 한국말로 'Hwabyeong'이라 한단다.

조금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로 살기를 소망한다. 화를 참지 말고 쏟아내지 지혜로운 선택으로 풀어내길 말이다. 답아두면 병이 되어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이 그 끊는 속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

이나,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은 커지고 이해하지도 이해받지도 못할 오해의 발단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울화가 치밀고 속상함이 밀려올 때는 여행을 하자. 가까운 바닷가 에라도 훌쩍 떠나 반나절 바다와 만나 얘기라도 하고 돌아오면 가슴이 훅 트이기도 한다. 이렇게 트인 마음에서 서로 부부간에 대화라도 시작된다면 한결 부드러운 말이 오가고 마음이 통하게 될 것이다.

늘 곁에서 삶을 맞대고 의지하며 사는 부부가 무슨 원수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등 돌리며 무덤덤하게 살아야 할까. 여행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도 멀리도 생각하지 말자. 여행을 떠나는 마음의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연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만나 주고 읽어주고 안아주며 치유해주는 놀라운 신비와 경이가 있다. 그 느낌만으로도 내 안의 아픈 상처는 치유를 얻기도 한다. 내 말을 실컷 토해 놓으면 들어주는 자연은 언제나 고마운 친구이다. 혼자자 아닌 우리의 세상을 말간 영혼의 눈을 떠 바라보는 일. 바로, 여행이 주는 삶의 또 다른 선택인 것이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로마인 이야기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는 전함을 보았고, 병사들이 지르는 함성을 들었던 거다. '후퇴하라.'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명령이다. 최고사령관 안토니우스 허락도 없었다. 더 가관은 안토니우스였다. 전선을 물리는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뒤따라 퇴각한 거다. 곁을야, 날 살려라였을 것이다.

안토니우스를 따르지 못한 전선戰艦과 병력은 괴멸되었다. 안토니우스쪽이 다소 우세한 싸움이었는데, 완패했던 거다. 안토니우스가 아둔했던게 문제였다. 안토니우스는 참모로는 관찰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최고 리더가 될 재목은 아니었다. 키케로의 말이다. '게으른 리더는 참을 수 없다. 그러나 미련한 리더는 용서할 수 없다.'

키케로 말만 빛나는 건 아니다. 시이저도 말을 남겼고 후세 작가들도 말을 거들었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 밖에 보지 않는다 (시이저)' '그가 죽었다(시이

저가 친구이면서 정적政敵의 죽음에 남겼다는 말).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속였다. (아우구스투스를 가르치며 작가의 말).' '인간은 공짜로 얻은 권리보다 돈을 주고 산 권리를 더 귀히 여긴다.(시오노 나나미).'

저자가 책에서 마키아 벨리 말을 빌려왔다. 평화는 공짜로 오지 않는다. 우리 귀에도 익은 말이다. 자주국방이란 말과 더불어 기억한다. 오래전 한국정부에서 북의 남침을 경고하며 자주 인용했더랬다. 한국대통령이 북쪽 최고위층과 만난다 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뭘 주고 뭘 받아 올 것인가. 그건 궁극하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클레오파트라와 콧대가 조금만 낮았다면, 세상 역사가 달라졌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 22:21)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기억하시는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이 나왔던 대단한 영화이다. 까까머리적에 단체로 영화관에 가서 봤던가. 화려한 몇장면이 떠오른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전海戰장면은 압권이었다. 바다가 전쟁터가 된건 아쉬운데, 내게 바다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한국 남해바다가 더욱 그러하다.

바다 한 송이를 얘기동백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정현중, 한송이 바다 중에서)

'로마인 이야기'란 책이 있다. 책은 열 몇 권이다. 책 시리즈 중반엔 시이저가 주인공이다. (내겐 여전히 시이저이고, 케이사르는 여색하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빛나는 조연이다. 키케로도 빠질수 없다. 시이저가 암살당한 후後였다.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 해전海戰으로 맞붙었다. 클레오파트라도 안토니우스편에서 전비戰費와 전함戰艦으로 참전했다. 그녀는 스스로 함대를 지휘하겠다 고집했다. 드디어 양편이 바다에서 붙었다. 전투가 시작되후, 몇시각 지나지 않았다. 클레오파트라가 겁을 먹었다. 불타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29)

자산관리사의 투자 조언

얼마 전 집사람이 '아침마당' 을 보라고 합니다. 한 자산관리사가 한국에서 '부자 되는 방법' 을 강의한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주식투자를 전혀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주식투자를 직접 경험했다면 이런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산관리사인 강사는 주식 투자하기 전 국내총생산(GDP)을 살펴보고 주식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식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에 과거 GDP 수치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미래의 GDP가 중요한데 미래는 예측을 해야 합니다. 자산관리사는 GDP가 증가한다고 예상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이기에 주식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 GDP를 먼저 살펴보고 증가한다면 투자하는데 그다음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가가 문제라고 합니다. 투자 종목은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최고치와 최저치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투자할 수 있는지

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말입니다. 과거의 주가가격과 미래의 주가가격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주가가격 변동으로 미래에도 같은 패턴(Pattern)으로 주가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한다는 것이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입니다. 누군가가 주가가격이 어떠한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안다면 주식시장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격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주식을 사고 다른 한쪽은 내려갈 것이라는 판단하에 파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격이 성립됩니다. 한 마디로 주가가격은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우스럽게(Random) 움직인다는 주식투자의 기본을 강사는 모르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미래를 특히 주식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많은 신문, 잡지, 투자 뉴스

레터가 끊임없이 주식 전망을 발표합니다. 한국의 주식투자 미디어에선 소위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종목은 때려죽여도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마누라를 팔--, 아니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 종목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라고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투자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산관리사인 강사나 소위 주식전문가인 사람들이 미래의 주식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주식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지 왜 저렇게 맘을 흘려가며 열심히 투자 설명을 하는 것인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BR) 의장인 버냉키는 미국의 돈을 직접 '쥐었다 풀었다'를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에 웬만한 주식전문가보다도 미래를 전망하기에 유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8년의 임기를 끝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의 경험에서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예측하는 그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If the experience of the past few years teaches us anything, it is what we should be cautious in our forecasts.>라고 언급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나오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sults)" 라는 문구입니다. 과거의 수치가 미래의 움직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산관리사가 본인이 강의한 대로 직접 투자했다면 실패하는 투자인지를 바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자산관리사는 주부들이 많이 시정한다는 공영방송에 나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한 국가의 GDP와 과거 1년간의 주가가격 움직임에 의해서 성공하는 주식투자도 이어진다면 당연히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18
화랑세기花郎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서 문노는 신기의 격검술을 발휘하면서 휘하의 많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가는곳마다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리고 지위와 신분으로 인하여 응당한 상급을 받지 못해도 초연하게 도리어 부하들을 위로하였다. "대저 상벌이라 하는 것은 소인의 일이다. 그대들은 이미 나를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어찌 나의 마음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삼지 않는가?" 라면서 덕장이 될 위모를 젊었을때 부터 나타내고 있었다. 이어지는 화랑세기,

[세종이 6세 풍월주가 되자, 친히 집으로 찾아와 말하기를 "나는 감히 그대를 신하로 삼을 수 없소. 청컨대 나의 형이 되어 나를 도와 주시요" 했다. 말이 심히 간절하여, 공이 이에 굽혀 섬겼다. 세종은 이에 제후에게 말씀을 드려 이르기를 "비조부의 아들 문노는 고구려와 백제를 치는데 여러 번 공이 있었으나 어미로 인하여 영달하지 못했으니, 나라를 위하여 아까운 일입니다" 했다. 제후가 이에 급찬級찬의 벼슬을 내렸으나 받지 않았다.]

세종은 전군의 신분이었지만 요절한 사다함의 유언으로 그를 이어 6세 풍월주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젊은 문노는 이미 격검술이 신기에 달하였고 낭두로서의 덕망을 가지고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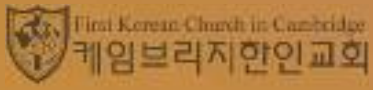
다. 그는 어머니 문화공주는 가야의 왕녀(또는 야국왕이 조공한 여자)였기에 문노는 골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군인 세종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다. 문노의 아버지 비조부의 지위와 문노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노는 6세기 중반인 당시에, 삼국이 한강유역을 놓고 삼수년간 접전을 벌인 전투에 김무력(김유신의 할아버지)을 도와 참전하여 세운 공을 인정받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리고 임금인 진흥왕이 급찬의 벼슬을 내렸지만 사양하였다. 급찬은 9등급의 지위로 6두품의 신분이어야만 오를 수 있는 벼슬로 문노의 당시 신분은 6두품으로 추측해본다(문노는 나중에 윤궁과 혼인하여 골품을 얻었다. 윤궁은 거칠부의 딸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보 제3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북한산진흥왕순수비에는 김무력의 전공戰果가 기록되어 있다. 그 비는 555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1260여년간 정확한 비문의 내용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무학대사비 라고 추측되어 오다가...), 1816년에 금석문 해독의 선구자인 추사 김정희에 의해 판독되었다.

문노는 아버지 비조부가 진골의 가계였지만 어머니가 가야계로 골품이 없었기에 전공에 상응하는 보은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진흥왕

이 내리는 벼슬도 마다하였다. 아마 서자로 태어난 고뇌와 서러움을 '홍길동' 보다는 10여 세기나 앞서 체험한 것 같다. 문노의 어머니는 당시 인통姻統을 형성하여 비빈을 제공하고 귀족들과 혼인한 진골정통나 대원신통의 인맥姻脈이 아니었기에 그는 골품이 없이 늘 '서얼' 취급을 받았다.

위에 인용한 화랑세기의 마지막 문장, 6세 풍월주 세종이 동북이부 형인 진흥왕에게 말한 내용을 좀더 깊게 살펴보면 화랑세기 '필사본' 이 위작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입증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문노의 활약상이 나오지 않지만, 화랑의 수장인 풍월주의 세계世系와 생애를 다룬 화랑세기를 그 사서들과 교차 검증해보면 도저히 창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왜 문노가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배제되었는지도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유교사상에 젖은 김부식은 골품이 없었던 당시의 문노가 그다지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담임목사 김태환
REV. TAE WHAN KIM

6th REGULAR CONCERT
CHOIR & ORCHESTRA OF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40TH

ANNIVERSARY CONCERT

케임브리지한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

Friday, April 13 7:30 PM

Beethoven: Choral Fantasy, Op.80
Kim: Around the World for Choir & Orchestra
Three Bible Stories for Choir
Three Majestic Anthems for 4 Cellos
Three Contemporary Anthems: The Rebirth of Church Hymns



KEEYOUNG KIM
Conductor



HWAYOUNG AN
Piano



JIEUN YU
Soprano



YOO SUN NA
Soprano



KYUYOUNG LEE
Tenor



SEUNGYUN KIM
Bass



SORA JUNG
Piano

Young Sook Lee, Hyun-Ji Kwon, Suah Kim, Sarah Lee, 4 Cellos



3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PARKING INFORMATION: Street parking on resident parking area is available. A special event parking permit will be distributed on the day of the concert.

Metered parking is available on the street or GREEN STREET PARKING GARAGE at 260 Green St. Cambridge, MA

PUBLIC TRANSPORTATION : MBTA Red Line Subway to Central Sq. (5 minutes walk to church)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3)

- 사회보장연금 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Q)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를 수령하면 이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내나요? 미국에 내나요?

(A)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같은 공적연금은 지급하는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를 받으면 미국에서만 과세된다.

최근 들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를 받는 사람(반대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의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세조약상의 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가 수령한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이 어느나라에서 과세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조약’을 살펴봐야 한다.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연금을 ‘공적연금(public pension : Social Security/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private pensions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금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적연금의 과세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한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한미조세조약 24조).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포함)가 미국 정부로부터 수령한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는 미국에서만 과세된다. 즉, 한국의 거주자로 판명된 미국시민

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받은 Social security benefits 은 한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미국의 거주자가 받은 한국의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사적연금의 과세

참고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은 수령한 사람의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된다(한미조세조약 23조). 즉,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대가로서 미국에서 받은 퇴직연금 등은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 23조는 Savings Clause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조세조약에 불구하고 각각 자국의 시민에게 사적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미국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그 소득에 대해 거주국인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며(실제과세여부는 한국의 세법에 따름), 또한 savings clause규정에 의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미국의 세금계산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을 수령하면,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연금수령액, 다른소득의 유무,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등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거주자에 대한 과세

구체적으로는 수령한 Social Security Benefits의 50%와 다른과세대상소득을 합한 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과세는 납세자의 현황에 따라 과세가 전혀 안 될 수도, 아니면 일정부분 과세될 수도 있다.

Filing status	기준금액
single, HOH, qualifying widow(er);	\$25,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d lived apart from your spouse for all of 2017	\$25,000
married filing jointly	\$32,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d lived with your spouse at any time during 2017	0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에게 지급한 Social Security Benefits 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혹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중 Social Security Benefits에 원천징수당한 금액이 있으면, 이에 대해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세금신고시 Form 1040을 작성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금 수령자가 원천징수를 원하면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면 중간예납과 관련된 가산세회피를 위해 분기별 예납(estimated tax)을 하든지 아니면 매월 연금수령시 원천징수를 요구하여 일정액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는 수령한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Social Security Benefits 지급시 그 지급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30%(즉, 연금수령액의 25.5%)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Prime Motor Group

Fast, Fair & Simple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0 Down Leases!"



2018 Hyundai Sonata SE

Lease: **\$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3,190

Season of More EVENT



2018 Hyundai Elantra SE

Lease: **\$14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19,845

Season of More EVENT



2017 Hyundai Tucson SE

Lease: **\$16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4,740

Season of More EVENT



2018 Hyundai Santa Fe Sport

Lease: **\$1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7,845

Season of More EVENT



2017 Hyundai Sonata Hybrid SE

Lease: **\$21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7,885

Season of More EVENT



2017 Hyundai Santa Fe SE

Lease: **\$225/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33,700

Season of More EVENT



2017 Hyundai Veloster Value Edition

Lease: **\$23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2,310

Season of More EVENT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incentiv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03/31/2018.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All offers expire 03/31/2018."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선택된 들판 상젤리제 거리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던 시간. 선생은 "오, 상젤리제"란 노래를 가르쳐주었다. 루이 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 이름만으로도 기를 죽이는 고급 상점들이 즐비한 상젤리제 거리를 가본 것은 그로부터 십 수년이 흐르고 프랑스어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볼 일을 보러 간 때였다. 듣던 대로 비가번쩍하고 할 일이라고는 돈과 시간과 여유를 소비하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상젤리제는 선택된 거리이다. 부자들에게만 선택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원적으로 '선택된 거리'를 뜻한단 말이다. Champs은 '들판'이고 Élysées는 '선택된'이란 과거분사이다. 프랑스어까지 다루기에는 지면이 좁지만 일리노이 주의 Urbana-Champaign에서도 들판을 의미하는 champaign을 볼 수 있다. 말이 난 김에, Arkansas부터 Louisiana를 거쳐 Illinois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은 프랑스 땅이었고 이 지명들은 당연히 프랑스어에서 왔다. 이 지명들의 끝에 오는 /s/를 발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어에서 '선택하다'는 elect이고, 그러한 정치행사를 election이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President-Elect라 한다. 이 단어는 본래 프랑스어의 중개를 거쳐 라틴어 eligere에서 왔다. eligere의 과거분사에서 온 elite

는 선택된 사람 즉 '엘리트'이다. 선택된 사람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보다 그 수가 훨씬 적다. 어느 사회에서나 엘리트가 적은 이유이다. '자격이 있는'이란 말은 결국 '선택될 수 있는'이란 말이니까 eligible이다. 선택된 사람들은 자태도 우아하기 때문에 elegant, elegance는 각각 '우아한, 우아함'이란 뜻을 가진다.

프랑스인들이 파리 중심가에서 재현하고자 했던 원조 엘리자 평원은 호머의 <오딧세이아>에 처음 등장한다. 그는 이 서사시에서 '엘리자 평원'을 인생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했다. 눈이나 비도 내리지 않고, 폭풍도 불지 않는 엘리자 평원에서는 바다에서 시원한 서풍만이 불어와 사람들을 식혀 준다고 했다. 호머와 쌍벽을 이루는 그리스 시인 헤시오드 역시 '엘리자'에 대해 바닷가의 축복받은 자의 섬으로 슬픔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며 1년에 세 번 꼴처럼 달콤한 과일이 열리는 곳이라 했다. 과연 그런 곳이 존재할까?

흔히 '낙원'이라 말하는 이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보다 조금 먼저 살았던 영국의 대문호 토마스 모어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u-와 -topia(장소)'를 결합해서 '유토피아'란 제목을 만들었다. 1년에

세 번 달콤한 과일이 열리는 곳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곳이 있다면 살아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즉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밖에 없다. 데려가기만 하고 돌아오게 해주지는 않는 사공의 ferry에 실려 망각의 강 Lethé를 건너 도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엘리자 평원이고 유토피아이고 저승이다. 동양 즉 인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다. '가자 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라고 번역하는 'gate gate paragate parasamgate'는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어 구절이다. 여기서 ga는 영어에서 go로 바뀌고 -te는 '~하자'란 어미이다. 현장법사에 의해 중국에서 탄생한 <반야심경>이 인도로 역수출되어 탄생한 산스크리트어본과 달리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수입된 <반야심경>의 후렴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로 바뀌었다.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벗어났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영어의 /l/과 /r/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lect는 [이렉트]가 아니라 [일렉트]이고, erect는 [일렉트]가 아니라 [이렉트]이다. 일본의 전 수상이었던 나카소네가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을 만나서 했다는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생각난다. "몇 번이나 당선되었습니까?"라고 물어보려던 나카소네가 [이렉트]라고 잘못 발음하는 바람에 그 뜻이 그만 "몇 번이나 서셨습니까?"가 되고 말았다. 머뭇거리던 레이건이 나이가 들어서 잘 서지 않는다고 했으나 뭐래나.



Arnold Böcklin의 <엘리자>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스페셜]

미국에서 건축 업무를 하고자 하세요? O비자를 꼭 고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 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음악, 미술, 무용을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축도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건축은 시대상을 표현하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을 전공했거나 건축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에서 계속 경험을 쌓고자 한다면 O비자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O비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O비자는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4월 1일에 접수되어야 하는 H-1B와 달리 일년 내내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3년씩 1회 연장, 즉 총 6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H-1B와 달리 3년씩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체류에 있어 더 용이합니다. O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반드시 고용주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현재 OPT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 중인 분이라도 O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들 처럼 O비자의 자녀나 배우자는 다른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O비자가 가능한 많은 예술 영역 중 건축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선, 건축을 전공했거나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O비자를 신청할 때는 업무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건축디자인(Design Architect)" 라는 직책으로 O비자를 신청합니다.

건축 디자인으로 O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접근 방법도 다른 예술가들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O비자의 주요 요건 중에는 예술가가 언론에 노출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예술가의 이름이 신문이나 인쇄 매체에 나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가의 경우 콘서트를 진행하면 포스터나 브로셔에 음악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문에 콘서트에 대한 안내가 나오면 음악가의 이름은 저절로 언

급되게 됩니다. 미술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전시회인 경우에도 신문은 참여 작가 명단을 나열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축 분야에서 개인 건축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축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1인이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회사 내에서 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큰 건물이 생긴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더라도 건축가 개인의 이름 보다는 회사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신 고객들은 자주 자신의 이름이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다며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축 분야 O비자를 많이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러한 우려는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우선 고객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건축 분야의 특이성과 건축의 규모를 이민국에 설명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는 개인보다는 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 일을 한 동료나 상사의 추천서를 통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프로

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서류가 제시되면 개인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노출이 하나도 없더라도 O비자 승인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술은 분야도 많고 각 분야마다 특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O비자를 지원하는 경우 자신의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IM@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93845027

SONGLAWFIRM



트럼프가 걸어잠근

H-1B

그 열쇠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 있습니다.

A.A.A. 전미이민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팀
 YouTube
 G
 H-1B 법률상담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기업 고객

국제법	소송
금융법	이민법
노동 및 고용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지적 재산법
부동산	프랜차이즈법
상법 및 M&A	

개인 고객

가정법	소송
노동 및 고용법	이민법
부동산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사고 상해	지적 재산법
상법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세금, 상속, 유언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드롭스토어 총연매상 \$923,000+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20,000 노 퍼크기계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00,000 좋은 렌트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채중 경영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채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북쪽 드랍+우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남쪽 팩스보로 스타디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400,000
하이드로카본 기계, 고용인(3명)+소유자(1명)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1,2/ AP 수업 특강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풀이 중심
상시 참여와 주말 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 학과목 개인 수업 지도

영어, 수학,역사,과학,외국어
경제,심리, 기타 과목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4월 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4/16(월)~4/26(토):6일

1. SAT1/ SSAT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각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실전 연습 문제 풀이
단기 Test Prep 확립

2. SATII Subject Test

Math IIc,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학과목 선행

학습 지도

2018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명확한 업무 처리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 경시 대회
(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Biology, Chemistry, Physics)